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女性の 美學的 價值變化分析에 따른
現代女性の Face Design에 관한 研究

2011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楊 枝 配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申仁淑

女性の 美學的 價值變化分析에 따른
現代女性の Face Design에 관한 研究

Changes in the aesthetic value of wome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face design of a modern women's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楊 枝 配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申仁淑

女性の 美學的 價值變化分析에 따른
現代女性の Face Design에 관한 研究

Changes in the aesthetic value of wome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face design of a modern women's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楊 枝 配

楊枝配의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여성의 미학적 가치변화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미학(美學)의 개념과 미(美)의 정의

1. 미학의 개념	6
2. 미의 정의	9
3. 미의 가치의 종류	12
1) 미의 상대적 가치	12
2) 미의 심리적 가치	13
3) 미의 진화적 가치	13

제 2 절 미적 범주

1. 순수미(schon)	16
2. 추 미(hablich)	18
3. 우아미(niedlich)	20
4. 숭고미(erhaben)	22
5. 비장미(tragisch)	24
6. 골계미(komish)	25

제 3 장 미학적 가치 변화에 따른 여성 Face Design 유형분류

제 1 절 시대에 따른 여성 Face Design 유형

1. 모계시대의 Face Design	29
2. 종교사회의 Face Design	31

3. 부계사회의 Face Design	33
4. 여왕시대의 Face Design	36
5. 여성성공시대 Face Design	38

제 2 절 시대에 따른 여성 Face Design 유형별 특성분석

1. 모계시대의 Face Design	40
2. 종교사회의 Face Design	45
3. 부계사회의 Face Design	51
4. 여왕시대의 Face Design	59
5. 여성성공시대 Face Design	65

제 4 장 스마트워크(Smart Walk)시대의 여성의 Face design direction

제 1 절 스마트워크시대의 정의

1. 시물라크르(simulacre)	70
2. 스마트 워크 시대	73
3. 스마트 워크 시대의 미적가치	74

제 2 절 스마트워크시대의 여성의 Face Design 특성 분류

1. 보편성	75
2. 완전성	77
3. 탈젠더화	79
4. 다문화	81
5. 전문성	84

제 3 절 스마트워크 시대 여성의 Face Design Styling

1. 보편성의 F.D.S	89
2. 완전성의 F.D.S	92
3. 탈젠더화의 F.D.S	95

4. 다문화의 F.D.S	98
5. 전문성의 F.D.S	101
 제 5 장 결 론	 104
 【참고문헌】	 108
 ABSTRACT	 111



【표 목 차】

[표 1] 여성의 미적가치의 흐름 변화	17
[표 2] 모계시대의 골계미 얼굴디자인 : 본인 작품 중심으로	42
[표 3] 골계·추 미 스타일 이미지 맵	43
[표 4] 모계시대의 얼굴이미지 연구: 현대 뷰티산업사례 중심	44
[표 5] 종교시대의 순수미의 얼굴디자인 사례 : 본인 작품 중심으로	48
[표 6] 순수미 헤어스타일 이미지 맵	49
[표 7] 종교시대의 얼굴이미지 연구 ; 현대 뷰티산업 사례 중심으로	50
[표 8] 부계시대의 우아미 얼굴디자인 사례1 : 본인 작품 중심으로	54
[표 9] 부계시대의 우아미 얼굴디자인 사례2 : 본인 작품 중심으로	55
[표 10] 부계시대의 우아미 얼굴디자인 사례3 : 본인 작품 중심으로	56
[표 11] 우아미 헤어스타일 이미지 맵	57
[표 12] 부계시대의 얼굴이미지 연구; 현대 뷰티산업 사례 중심으로	58
[표 13] 여왕시대의 숭고미 얼굴디자인 사례1 : 본인 작품 중심으로	61
[표 14] 여왕시대의 숭고미 얼굴디자인 사례2 : 본인 작품 중심으로	62
[표 15] 여왕시대 헤어스타일 이미지 맵	63
[표 16] 여왕시대의 얼굴이미지 연구: 현대 뷰티산업 사례 중심으로	64
[표 17] 여성성공시대의 비장미 얼굴디자인 사례1 : 본인 작품 중심	67
[표 18] 비장미 헤어 스타일 이미지 맵	68
[표 19] 여성성공시대의 얼굴이미지 연구: 현대 뷰티산업 사례중심으로	69
[표 20] 스마트 워크 시대의 시대적 특성	88
[표 21] 보편성 Face Design Concept	89
[표 22] 보편성 Face Image direction :본인 작품	90
[표 23] 보편성의 Face Design direction :본인 작품	91
[표 24] 완전성 Face Design Concept	92
[표 25] 완전성 Face Image direction:본인 작품	93
[표 26] 완전성 Face Design direction :본인 작품	94

[표 27] 탈젠더화 Face Design Concept	95
[표 28] 탈 젠더화 Face Image direction :본인 작품	96
[표 29] 탈 젠더화 Face design direction:본인 작품	97
[표 30] 다문화 Face Design Concept	98
[표 31] 다문화 Face Image direction :본인 작품	99
[표 32] 다문화 Face design direction :본인 작품	100
[표 33] 전문성 Face Design Concept	101
[표 34] 전문성 Face Image direction :본인 작품	102
[표 35] 전문성 Face design direction :본인 작품	103



【그 립 목 차】

<그림 1> ‘빌렌도르프의비너스’	15
<그림 2> ‘네페르티티’	15
<그림 3> 장 푸케 ‘성모자’	15
<그림 4> 레오나르도 다빈치‘체칠리아 갈레라니 초상’	15
<그림 5> 아놀로브론치노‘루크레치아 판차티키의 초상’	15
<그림 6> 조지 롬니 ‘키르케 같은 해밀턴 부인’	15
<그림 7> 자크루이다비드 ‘레카미에 부인의 초상’	15
<그림 8> 단테이 게이브리엘 로세티 ‘윌리스부인’	15
<그림 9> 에르곤 쉴레 ‘한쪽 무릎을 구부린 여인’	15
<그림 10> ‘성모자’, 장푸케,	18
<그림 11> ‘보통을 포옹하는 티타니아’, 요한 하인리히 뢰슬리,	20
<그림 12> ‘그네’,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	22
<그림 13> ‘안개 바다위의 방랑자’,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24
<그림 14> ‘게르니카파블로’, 피카소	25
<그림 15> ‘여름’, 주세페아르침볼도	28
<그림 16> ‘채소기르는 사람’, 주세페아르침볼도	28
<그림 17> 다산의 여신 케레스	30
<그림 18>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30
<그림 19> ‘엘리자베스 1세’	38
<그림 20> ‘엘리자베스 1세 초상’	38
<그림 21> 골계미 Face image,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42
<그림 22> 골계미 FACE DESIGN, 본인작품	42
<그림 23> 현대여성에게 나타나는 골계·추미 스타일 이미지 맵	43
<그림 24> 뷰티산업에서 나타나는 골계미, 추미의 사례	44
<그림 25> 골계미 컬러 맵 포지셔닝	44
<그림 26> 골계미·추미 Face Image Map :본인 작품	44
<그림 27> 종교시대의 헤어스타일	46

<그림 28> 종교시대의 헤어스타일	46
<그림 29> 종교미의 Face Image	48
<그림 30> 현대여성의 종교미 Face Design :본인 작품	48
<그림 31> 현대여성에게 나타나는 순수미 스타일 이미지 맵	49
<그림 32> 현대여성의 순수미	50
<그림 33> 종교미 컬러 맵 포지셔닝	50
<그림 34> 종교미의 Face Image :본인 작품	50
<그림 35> 풍파두르 스타일	52
<그림 36> 풍탕주 스타일	52
<그림 37> 현대여성에게 나타나는 우아미 스타일 이미지 맵	54
<그림 38> 현대 여성의 Face Design :본인 작품	54
<그림 39> 우미의 Face Image	55
<그림 40> 현대여성의 우미 Face Design :본인 작품	55
<그림 41> 우미의 Face Image	56
<그림 42> 현대여성의 우미 Face Design	56
<그림 43> 현대여성에게 나타나는 우아미 스타일 이미지 맵	57
<그림 44> 우아미 Face design 사례	58
<그림 45> 부계시대 컬러이미지 맵 포지셔닝	58
<그림 46> 우아미의 Face Image map :본인 작품	58
<그림 47> 엘리자베스 여왕	60
<그림 48> 무트네젠티 여왕	60
<그림 49> 현대여성에게 나타나는 숭고미 이미지 맵	61
<그림 50> 현대 여성의 Face Design 연구 사례 :본인 작품	61
<그림 51> 숭고미 Face Image 네페르티티 상	62
<그림 52> 현대 여성의 Face Design 연구 사례	62
<그림 53> 현대여성에게 나타나는 숭고미 이미지 맵	63
<그림 54> 뷰티산업에서 나타나는 숭고미의 사례	64
<그림 55> 숭고미 컬러이미지 맵 포지셔닝	64
<그림 56> 여왕시대의 Face image Map :본인 작품	64

<그림 57> 비장미 Face Image	67
<그림 58 > 현대여성의 비장미적 Face Design 연구 사례 :본인 작품 ...	67
<그림 59> 현대여성에게 나타나는 비장미 스타일 이미지 맵	68
<그림 60> 뷰티산업에서 나타나는 비장미의 사례	69
<그림 61> 여성성공시대 컬러이미지	69
<그림 62> 여성성공시대의 Face image Map :본인 작품	69
<그림 63> 현대 여성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움의 보편화	77
<그림 64> 현대여성의 완전성 사례	79
<그림 65> 현대 여성과 남성의 탈 젠더화 사례	81
<그림 66> 현대여성의 다문화 사례	84
<그림 67> 교육정도별 여성 취업자 분포	86
<그림 68> 직업별 취업자 분포 변화	87
<그림 69> 임금계층별 근로자 비중 변화 비교	87
<그림 70> Color Image Scale Positioning	89
<그림 71> Color Image palette	89
<그림 72> 보편성 Face Image direction	90
<그림 73> Color Image palette	90
<그림 74> 보편성의 Face Design direction :본인 작품	91
<그림 75> Color Image Scale Positioning	92
<그림 76> Color Image palette	92
<그림 77> 완전성 Face Image direction	93
<그림 78> Color Image palette	93
<그림 79> 완전성의 Face Design direction :본인 작품	94
<그림 80> Color Image Scale Positioning	95
<그림 81> Color Image palette	95
<그림 82> 탈젠더화 Face Image direction	96
<그림 83> Color Image palette	96
<그림 84> 탈젠더화의 Face Design direction :본인 작품	97
<그림 85> Color Image Scale Positioning	98

<그림 86> Color Image palette	98
<그림 87> 다문화 Face Image direction	99
<그림 88> Color Image palette	99
<그림 89> 다문화의 Face Design direction :본인 작품	100
<그림 90> Color Image Scale Positioning	101
<그림 91> Color Image palette	101
<그림 92> 전문성 Face Image direction	102
<그림 93> Color Image palette	102
<그림 94> 전문성 Face Design direction :본인 작품	10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몸단장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자 그 시대를 반영하는 미적가치이다. 인간은 자신의 미적가치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다다르기 위하여 자신을 가꾸고 노력한다. 영국 군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16세기 여성들의 미적가치의 기준이었다. 그녀가 통치하는 동안 영국은 번영하였고 백성들은 그녀를 존중하고 모방하고 싶어 했다. 엘리자베스 1세의 패션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은 화려했다. 목과 가슴부분일 보이는 넓고 뾰뚱한 주름 깃을 즐겨 입었으며 이것은 그 시대의 처녀들 사이에서 즉시 유행하였고, 나이가 들면서 가발로 자신의 염색한 머리를 부풀려 화장품을 풍부하게 바른 인위적인 미의 기준을 보여 주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모방하여 따라갔다.

원시시대에는 비정상적으로 비만한 여자가 미인 이었다면 현대에는 거의 영양실조에 가까운 깡마른 사람을 미인으로 평가하고, 피부 관리가 성업 중인 현대와 달리, 100년 전만 해도 어떤 미개민족은 일부러 얼굴에 생채기를 내서 흉터가 많은 우둘투둘한 피부를 아름답다고 여겼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모나리자처럼 눈썹이 없는 사람을 미인으로 여겼고, 에도 시대 말까지 일본에서는 눈썹을 밀어버리고 이마 위에 새로 그리는 미용술이 유행했으며, 베트남의 자오 족도 눈썹이 없는 넓은 이마를 가져야 미인으로 보았다. 조선시대의 쪽 진 머리도 이마가 넓어 보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대에는 넓은 이마가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태국의 고산족인 카렌족¹⁾은 목이 길수록 미인으로 쳐서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돛쇠로 된 링을 목에 걸고 그 개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목을 억지로 길게 뽑고 어깨마저 아래로 처지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납작한 두상과 얼굴을 미인으로 여긴 적이 있었으나, 요즈음은 뽀족한 턱에 앞 뒤 짱구 형을 미인으로 여

1) 이리왕디 강 유역 미얀마 동부 국경 부근의 산지에 사는 타이계 종족의 하나, 화전 농업에 종사하고 문신의 풍습으로 유명하다.

기고 있다. 치아는 하얀색이 좋다고 미백 제까지 쓰고 있지만, 한때 일본에서는 흰 치아에 아침마다 일부러 검은 물을 들이기도 했다. 턱이 크고 눈이 작은 얼굴을 만며느리 형이라고 좋게 보는 할머니가 있는 반면, CD 한 장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어야 미인이라며 그렇잖아도 작아 보이는 얼굴에 턱까지 깎는 손녀딸이 있다.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는 것이²⁾ 그 시대의 미적기준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사회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미의 기준에는 보편성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편성에 따라가기 위하여 하루 몇 시간씩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자신을 치장하고 가꾼다.

과거 절대 권력시대의 영웅들은 그 시대의 최고의 미인들을 탐하였기 때문에 권력자들의 옆에는 늘 미인이 있었다. 그 시대의 아름다움의 조건은 능력, 재능의 조건도 필요 없는 오로지 그 시대의 미적 기준에 해당되는 여성이 권력을 가진 남성의 여성이 될 수 있었고 세상을 가질 수 있었지만, 현대 여성은 과거 여성과는 다르게 많은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으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권력시대가 되었다. 본인의 경제력이 허용된다면 자신의 아름다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시각적, 감각적 경험으로 인하여 미적관점이 다양화 되었지만 현대 여성의 미적가치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미적가치의 기준을 보여줄 때가 많아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다. 어린아이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른들이 입는 야한 의상을 입고 야한 춤을 추는 행동은 이 시대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이다. 따라 하기 바쁜 복제 인형이 되는 미적가치관이 아닌 미인의 한 범주로 자신이 미인의 한 카테고리 될 수 있도록 미래의 미적가치관에 대한 정립이 필요 한 때이다.

또한 과거의 사회생활에서는 인문학적 지식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철학이나 문학과 역사에 대해 알아야지만 그 시대의 미적가치 기준에 대하여 알 수 있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기계 기술의 발달은 대량생산과 기능주의 철학에 입각한 새로운 개념으로 미의 흐름 또한 변화됨을 보여준다. 인간의 미적가치변화는 시대에 따라, 민족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변화해

2) 조용진, 『미인』, 해냄:서울, 2007, p.31-32

오면서 뷰티디자인에서도 아름다움의 규격화, 대량생산, 기능적인 미의 흐름이 나타났으며, 아름다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은 감성과 아름다움의 시대를 도래 하게 만들었다. 이제 여성에 대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야흐로 여성권력의 시대로서, 아름다움의 가치는 어떤 시대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부각 되고 있으며 그것과 연결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여성의 미적가치변화 분석을 통하여 미래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해 가는데 유용한 지적 자원을 마련해 보고자 본연구자는 과거의 미적 가치 기준의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 현대 여성의 이미지로 재해석 해 보고 여성의 미학적 가치변화가 스마트 워크시대에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지 미학적 관점에서 정립하여 과거의 미적가치가 현대여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학의 미적 범주와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함으로 미학적 적용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자는 스마트 워크시대 여성의 얼굴디자인(Face design)을 제안을 위해 스마트 워크시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 여성의 얼굴 디자인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현대 여성의 얼굴디자인을 알아보기 전에 여성의 미적가치 변화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현대 여성의 이미지로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미적가치변화는 예술 작품 속 여성들의 얼굴이미지(Face image)에서 보여 지는 심미적 가치를 유형별로 분류한다. 예술작품의 대부분은 회화 그림 중 인물화로 구성되어진다. 인물화란 인체를 주로 표현한 그림을 말한다. 본래 특정 개인을 개체적 특징에 의해 표현하는 초상화, 또는 그와 같은 개인의 모임을 그린 집단 초상화를 지칭하였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종교화, 누드화, 풍속화 등 인물을 주체로 하여 그린 모든 그림이 인물화에 포함된다. 사람의 모습을 그림이나 조각 등으로 표현하는 인물화를 통해

오래 전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이 가능해진다. 또한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양식이나 작품 규모가 드러나는 인물화를 통해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의식과 사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인체의 미세한 떨림이나 심리상태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생김새와 함께 당시에 유행한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hair style, make-up), 의상, 장신구 등의 미적 표현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³⁾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인물화속 여성을 주체로 삼아 분석을 하였고 미학이론을 통하여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적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단계는 첫째, 제 2장의 미적대상의 영역과 미적 범주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얼굴디자인의 본질적 가치인 심미성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미학적 개념정립을 하고자 한다.

제 2장 미적 범주는 델타이와 데스와의 주장한 원환적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미적가치의 기준을 제한하여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많은 미학이론들 중에 델타이와 데스와의 주장한 원환적 방법론을 적용한 이유는 예술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야기되는 미적 상황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도 폭넓은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적용하게 되었다. 둘째, 적용된 미학적 가치변화의 흐름이 현대 뷰티디자인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여 여성의 아름다움의 미학적 가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셋째, 현대 여성의 미적가치 특성을 분석하여 미학적 근거를 토대로 스마트워크시대 여성의 미적가치에 따른 얼굴디자인을 제안 연구 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얼굴디자인(Face Design) 연구 방법은 시대에 따른 회화 속 여성의 미적가치특성을 현대의 미적가치특성과 비교 분석하여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그리고 전반적 스타일에 대하여 검토한다. 얼굴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시대에 따른 여성의 미적가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대여성의 얼굴디자인과 연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도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었던 여성은 지배층과 권력층들로 보여지고 있다. 현대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력이 있는 전문직 여성들에게서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워크 시대

3) 김경하, 「르네상스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특징」,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9

의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직종의 여성상을 모델로 제한하고자 한다. 시대에 따른 여성 얼굴이미지의 특성이 현재 뷰티 산업에 보여지고 있는 여성의 얼굴이미지를 같이 분석하여 현대여성의 얼굴 이미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첫 번째로 시대적 특성에 따라 컬러에 대한 분석을, 두 번째로 형태(Form)에 대해서는 헤어스타일의 형태(shape)와 메이크업 스타일에 대하여 분석한다. 세 번째 회화 속 여성의 전반적인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네 번째 질감(texture)은 시대적 미적가치의 컬러와 스타일 그리고 형태에 대한 형이상학적으로 표현은 Face Image Map으로 포괄적인 트렌드 분석을 통해 다양하게 보여지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장 미적 대상영역과 미적 범주

제 1 절 미학의 개념과 미의 정의

1. 미학의 개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학(美學)’이라는 용어는 일본인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Aesthetica라는 교과를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용어는 처음에는 선미학(善美學), 가취론(佳趣論: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론), 미묘학(微妙學: 섬세하고 묘한 것을 탐구하는 것) 등으로 번역되었지만, 1898년에 이르러 미학이라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사실 서양에서도 이 용어도 근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용어의 유래가 근대에 기반으로 두고 있다고 해서 미학적 활동이 근대 이후에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이미 고대 시대에서부터 미학적 활동은 존재하였다. 다만 미에 대한 탐구가 학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독일의 철학자 바움가르텐(A. G. Baumgarten, 1714-1762)의 저서 『미학』(Aesthetica I, 1750, II, 1758)에서 유래한다. 그런데 그는 이 용어를 사실 감각지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이스테시스(aisēsis)에서 근원을 두고 있다. 그는 인식을 ‘어두운(dunkel)’ 인식과 ‘명석한(klar)’ 인식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 후자의 인식을 다시 감성적 인식인 ‘혼란스러운(verworren)’ 인식과 ‘이성적’ 인식인 판명한(deutlich)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미학은 전자의 혼란스러운 인식에 속하였다. 미는 감성적 인식의 완전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에스테티카를 ‘감성적 인식의 학’(scientia cognitionis sensitivae)로 정의하였다. 이 이후 서양에서는 미와 예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미학(aesthetica, Esthétique, Ästhetik)이라고 명명하였다.⁴⁾

나아가 칸트는 바움가르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더욱 심화시켜 미에 관한 연구를 하나의 학문적 체계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인간의 심적 능력

4) <http://blog.naver.com/lemonade861?Redirect=Log&logNo=107002840>

을 인식능력, 감정능력, 욕구능력으로 구분하고, 두 번째와 관련하여 예술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는 『판단력비판』(Kritik der Urteilskraft, 1790)을 통하여 ‘취미(趣味)’¹⁾와 ‘천재’ 개념을 중심으로 미와 예술의 문제를 탐구하였다. 칸트에게 취미는 미를 판정하는 능력으로서, 우리의 주관, 주관에 따른 쾌, 불쾌라는 감정에 관계한다. 그에 의하면 취미를 통해 이루어지는 판단, 즉 취미판단은 우리들이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놀이’라는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어 보편타당성을 지닌다. 나아가 칸트는 예술을 천재가 미적 이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며, 그는 천재의 예술 창조 활동을 반성적 판단력의 주관적 원리에 근거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이런 방식을 통하여 예술은 이론적 인식이나 실천적 행위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의 미적 가치를 갖는다고 봄으로써 예술의 자율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미학의 견지에서 아름다움이란 용어가 취급될 때는 일상적인 개념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숭고한 것, 장대한 것, 비극적인 것, 음울한 것, 희극적인 것 등에서 조차 미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것은 일상적인 개념의 미와 상통하는 것으로 미학적 고찰의 대상이 된다. 미학적인 견지에서 미라고 지칭되는 미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미라고 말할 수 없는 가치 현상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다. ‘아름답다’는 말이 예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쓰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이 인간과 현실 속에서 복잡한 심미관계를 연구하는 미학은 사회과학의 한 부분이 되어가며 발전해 가고 있다. 한편으로 미학이라는 학문이 인간의 마음을 이성과 감성으로 철저히 나누는 체제가 보편적이라는 보증이 없으며, 그 체제가 서구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학문⁵⁾이라는 점에서 미학의 범주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미학에서 프랑스의 미학자인 드니 유이스망은 ‘미학이 첫째 예술에 대한 감성적인 측면의 연구이고, 둘째로는 예술 일반에 대한 철학적인 반성 및 성찰의 자체로서 미적인 판단을 반성적인 판단, 높은 감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실증주의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⁶⁾

5) 이상우, 「철학/미학, 동양철학/동양미학 그 분류와 범주의 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미학회지 제 33집』, 2002, pp.3-4

일반적으로 서양미학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미학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미에 관한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고대 철학은 B.C 5세기 후반인 고대 그리스 철학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중세의 사상적 본질은 기독교 사상의 지배 속에 있었다. 철학과 미학 역시 신학의 지배하에 아직은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이 시대의 특징은 미(美), 진(眞), 선(善)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에서 파악되고, 자연미가 신(神)의 현현(現顯)으로서 존중되었다.

16세기 르네상스의 중세미학은 예술(Arts)과 기술(Technic)을 분리시키고, 18세기에 회화, 조각, 건축, 음악, 무용, 시가(詩歌), 웅변술 등의 일곱 가지 예술을 '미적예술(Fine Arts)'이라 칭하게 되면서 기술과 확연히 구분하게 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중간~는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로 「신학 대전」에서 그의 미학적 성취를 보이는데, 그는 완전성, 조화, 광휘를 중세적 미의 개념의 세 가지 본질적 특징으로 파악하였다.

중세 말에 이르러 예술은 자연 개념을 통해 새로이 평가되는데 니콜라스 폰 쿠에스는 '자연의 모방'을 개별적 자연물이 아니라, 신의 예술 작품으로서의 자연과 연관시킨다. 중세의 미는 빈틈없이 짜여진 신학적·우주론적·창조론적 체계 속에서 언제나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으로 규정되었다. 개인의 주관성이나 예술적 감수성이 미 개념에 들어설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⁷⁾

프랑스를 시작으로 하여 독일이 중심이 되었던 근대미학은 감성적 인식에 의하여 포착된 현상으로서의 미, 즉 미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 '미적인 것'은 이념으로서 추구되는 미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의식에 비쳐지는 미이다. 그러므로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근대미학은 자연히 미의식 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근대 미학에 대한 발단은 데카르트로 수학적 이성을 진리 판단의 근거로 삼아 인간의 이성이 진리의 근본임을 선포, 정념과 같은 비이성적인 정신현상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문으로서 근대미학은 18세기 근대 미학의 창시자라 일컬어지는 독일의

6) 박혜원, 「현대미술의 숭고미와 동양정신의 추구」,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9

7) 김윤, 『미학의 역사』 미학대계 제1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p.140

바움가르텐(Baumgarten)의 에스테티카(Aesthetica)에서 '감성적 인식의 학'이라 명명한 것에서 시작된다. 미가 직관적, 감성적으로 파악되는 정신적 가치로 '감성적 인식의 법칙'으로 미학⁸⁾이 하나의 정식 학파로 성립된다.

19세기 독일의 칸트는 감성적 현상으로서의 미의식의 기초를 선험적, 형식적, 관념론적이라 특징지었다. 그에 반해 헤겔은 칸트의 주관적 관념론과는 달리 객관적 관념론을 주장하며 세계의 필연적 전제 속에서 변증법⁹⁾적으로 예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세기 현대 미학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점은 근대 이후 실증적인 경험적 경향과 관념적인 사변적 경향의 대립 속에서, 무엇보다도 세기 초에 '일반예술학'(Kunstwissenschaft)이 제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 미학은 근대 미학에 뿌리를 두고 점차 과학의 척도에 종속되어진다. 페흐너의 '아래로부터의 미학'을 제창하면서 심리학의 입장에서 미적 경험의 법칙을 탐구하려는 '설립미학'을 주장하였으며, 우티츠는 미적인 것을 다루는 미학과 예술적인 것을 다루는 예술학은 다른 것이라 주장하였다. 철학은 점차로 미학과 예술 이론의 영역에서 지녔던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상실했다. 사회학과 심리학이 철학의 효과적인 경쟁자가 되었고 민족학과 생물학과 신학은 예술과 미의 해명을 위해 각자의 소질을 발휘했으며 또 이러한 모든 학문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법론적이거나 인식론적인 소질에 따라서 차별화되었다. 20세기 현대미학은 미적현상의 해명에 사회학적 방법을 적용시키려는 '사회학적 미학'이나 분석철학의 언어 분석 방법을 미학에 적용하려 하는 '분석 미학'등 다채로운 연구 분야가 개척되고 있다.

2. '미 (美)'의 정의

미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으로 이것의 어원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의 미학

8) 다계우지 도우지, 안영길 외 역, 『미학예술사전』, 미진사:서울, 2003, p.197

9) 헤겔은 인식이나 사물은 정(正)·반(反)·합(合)(정립·반정립·종합)의 3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3단계적 전개를 변증법이라고 한다.

자라 불리는 공유접은 '아름'(안다) + '답다'(다움: 격, 가치), 즉 지(知)의 정상을 의미하는 '지적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안용백은 이름을 '열매'로 파악하여 '아름답다'의 뜻이 실용적임을 주장했다으며, 양주동은 '아름'의 고어 '아람'은 나(私)의 고훈(古訓)이며, '답'은 '같다'(如)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름답다'의 본래 의미는 '여유사호'(如有私好)의 뜻으로 '제 마음과 같다', 혹은 '제 마음에 어울린다'의 뜻으로 풀이한다.

또한 '아름답다'에 대한 한자어 어원인 '미(美)'는 '양(羊)'과 대(大)'가 합쳐진 가차(假借)글자로 '양이 큰 것이 좋다'에서 고대인의 공리관(公理觀)을 엿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심미관(審美觀)으로 옮겨진 것으로 본다. 이것은 양의 고기와 모피가 추위를 막는데 유용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문헌에는 미와 선이 구별 없이 사용됨으로 유용성과 미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원시시대 양머리를 쓰고 양 가죽을 덮고 뛰어다닌 것도 일종의 '미'의식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양에 관한 설화나 신화는 단지 동양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서양에서의 '아름답다'는 칼론(kalon)에서 벨룸(Bellum)으로 뷰티풀(Beautiful)로 시대마다 바뀌어 사용되었다. 어원인 칼로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감탄을 유발하며 환기시키는 모든 것"을 뜻한다. 후에 비례나 조화 같은 합리적인 성질을 지시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미란 본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정신적이며 동시에 심리적이며 유기적인 것으로 자연, 인생, 사회, 역사, 문화 및 예술 등의 제 영역에 걸친 다양한 현상과 형태를 가진 것이다. 이 낱말은 본래 사물, 행위, 사상, 언어, 마음, 증명 등을 형용하는 낱말로써 유럽에서는 일상적으로 '선량한', '알맞은', '근사한', '고귀한' 이란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이란 용어가 미학적인 견지에서 취급될 때는 일상적인 개념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숭고(崇高)한 것, 장대(長大)한 것, 비극적(悲劇的)인 것, 음울(陰鬱)한 것, 희극적(喜劇的)인 것 등에서 조차미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것은 일상적인 개념의 미와 상통하는 것으로서 미학적 고찰의 대상이 된다. 미학적인 견지에서 미라고 지칭되는 미(美)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미라고 말할 수 없는 가치 현상의 전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미(美)'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적(美的)'이란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만큼 단순히 미라고 표현되는 개념은 미적이란 용어에 비해 개념상으로는 보다 하위개념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미용에 있어서의 '미'는 사회 문화적 환경과 시대적 흐름, 풍속, 심리적 현상과 관련이 깊은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의 가치로서 새로운 인식의 창조이다. 머리양식은 한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 속에서 특정한 관점을 제공하며 그 표현에 의해 우리들의 미적인 의식을 좀 더 확장 시켜볼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며, 한 국가, 한 시대, 한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또한 머리양식은 시대적, 사회적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표현되는 미의식에 의한 행위로서 특별한 미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용에 있어서의 미의식은 창조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창조적 측면은 디자이너의 조형적, 예술적 의지이며, 표현적 측면은 자신 또는 디자이너에 의해 조형 및 예술을 직접 표현하는 행위적 의지이다.

미용에 의한 미의식의 표현은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와 변화를 주기 위한 시도로서 변형(變形), 채색(彩色)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¹⁰⁾ 따라서 다양한 창조적 행위에 의한 미적가치를 가지고 새로움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것을 미용에 있어서 '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서양의 공통적 의미의 '미'를 바탕으로 하는 미적가치는 감성적 인식에 의한 현상으로서 이념으로 추구되는 '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의식에 비쳐지는 미(Beauty), 즉 아름다운 것(The Beautiful)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¹¹⁾ 심미적인 의미에서의 '미'의 개념은 경험과 표현과 정신적 산물을 포함한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미적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항상 우리가 느끼고 겪고 있는 현실속의 존재이고, 시간과 공간, 문화, 부드러움이나 우아함 등의 복합적인 형태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아름다움은 일상적인 '미'와

10) 엄현신, 「얼굴에 대한 미의식과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8

11) 백기수, 『미학서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p.9-10

가치현상의 전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히 '미'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미적'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미'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대, 지역, 인종, 연령 등에 따라 미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며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한 미적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다.¹²⁾

1. '미(美)'의 가치

1) '미(美)'의 상대적 가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미의 기준들이 존재했음을 볼 수 있었으며, 머리 스타일에서만 보더라도 지리적인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본·중국 남성들의 머리 스타일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달랐다. 청나라 시대의 중국이나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는 변발이라고 해 남성의 머리 앞부분을 모두 깎고, 대신 뒷머리는 길게 땋는 풍습이 있었다. 반면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조선에서는 변발을 하지 않고 상투를 틀고 다녔다. 또한 중국에서는 여성들의 비정상적으로 작은 발인 전족이 유행했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족의 풍습이 남아 있다고 한다. 여성의 피부도 예전에는 백옥같이 하얀 피부를 높이 평가했는데, 현재는 미국의 라틴계 스타들의 피부처럼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를 아름다운 피부라고 생각한다.¹³⁾

따라서 아름다운 외모를 지각하는 생물학적인 특성은 주로 건강한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존 경쟁에서 도움을 주는 특성들이다. 동시에 인류는 수렵·채집 단계 이후에 정착을 하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환경에 적응해나갔다. 각각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람들은 모여 살게 되었고, 각 조건에 맞는 문화와 풍습을 만들어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풍습에 따라 상이한

12) 김진숙, 「한국여성 전통 머리 양식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과 서양 여성머리 양식의 비교를 통하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9

13) 성영신·박은아, 『아름다움의 권력』, 서울:소울메이트, 2009, pp.38-39

아름다움의 기준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상대적인 것들이 많다.¹⁴⁾

2) '미(美)'심리적 가치

외모에 대해 스스로 자각하고 느끼는 이미지를 '자기이미지', 다른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회적 이미지', 사람을 상대하면서 느끼는 이미지를 '대인관계의 이미지',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전문적 이미지'로 나눌 수 있고, 나누어진 이미지들은 그들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대인관계의 이미지가 좋으므로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사람들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에게 비밀을 더 많이 털어놓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나, 상대방을 충분히 신뢰하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이다. 그런데 외모가 아름다우면 호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친해지고 싶어 비밀도 더 많이 털어 놓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취업도 잘되고 소득수준도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¹⁵⁾

3) '미(美)'의 진화적 가치

음식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잘 먹고 튼튼해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기에 '아름답고 빼적 마른 외모'보다는 '덜 아름답지만 튼튼한'외모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대의 빼적 마른 몸에

14) 상계서, p.40

15) 상계서, p.45

대한 청송은 산업 사회 이후 농작물과 가축 등 식량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사람들이 더 이상 먹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오히려 살찐 몸을 아름답다고 여겼던 시기는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요즘처럼 빼적 마른 몸을 아름답게 본 경우는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지 못했던 1960년대나 1970년대에는 살이 찌면 잘사는 것으로 판단하고 살찐 사람을 동경했는데, 그러한 시절이 그리 먼 과거가 아니라는 점이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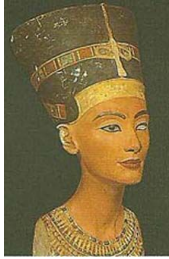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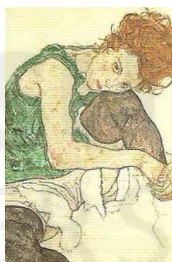
<표-1>¹⁷⁾을 보면 당대의 미적 기준의 변화를 표로 만들어 나타내보았다. 구석기 시대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와 한쪽 무릎을 구부린 여인상은 많은 차이가 보여지고 있다. 시대의 특징에 따라 미적가치관이 변하면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양식 또한 꾸준히 변화해왔는것을 알 수 있다.



16) 상계서, p.41

17) 움베르토 에코, 『미의 역사』, 열린책들:서울, 2004, p.16,20,21,24,25,28,34

<표-1> 여성의 미적가치의 흐름 변화

		
기원전 3만년 ‘빌렌도르프의비너스’	기원전14세기 ‘네페르티티’	1430년 장 푸케 ‘성모자’
		
1485~1490년 레오나르도 다빈치 ‘체칠리아 갈레라니 초상’	1540년 아폴로브론치노 ‘루크레치아 판차티키의 초상’	1782년 조지 롬니 ‘키르케 같은 해밀턴 부인’
		
1800년 자크루이다비드 ‘레카미에 부인의 초상’	1867년 단테이 게이브리얼 로세티 ‘릴리스부인’	1917년 에르곤 쉴레 ‘한쪽 무릎을 구부린 여인’

제 2 절 미적 범주

미적 범주는 사유 혹은 존재의 근본형식을 의미하는 철학사의 범주개념을 미학에 적용한 것이다.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살펴보면 협의의 미는 조화성, 직관성, 완결성, 무관심성, 쾌감성 미 고유의 특질이 가장 선명하면서도 완전하게 구현되는 것으로 '순수미'라 한다.

광의의 미는 미적인 것은 고유한 특질에 여러 조건이 부가되거나 여러 조건 하에서 경험적 사실에 대해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미적 범주는 그 근저에 미적인 정신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통의 원리적 구조나 성격을 띠면서 무한한 다양성 속에서 존재하는 미의 특수성을 유형으로 구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딜타이(Dilthey.W)와 데스와(Dessoir)의 원환적 방법을 활용한다.¹⁸⁾

1. 순수미(Schöne)

순수미(das Schöne, the beautiful, beauté)는 파생적 미에 대비되는 본래적인 미를 말한다. 이 순수미는 미의 일반적 특질이 가장 순수하게 구현되는 것으로 이상미라고도 하며 추나 숭고와 대립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를 우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설도 있다.¹⁹⁾

피셔는 순수미를 이념과 형상이 융합되고 조화된 정적인 통일 상태인 본래의 미라고 생각하고, 이는 발전 단계상의 미와는 달리 추와 관계하지 않는 직접적인 미이며, 다른 미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은 강한 대조성을 갖지 않는 직접적인 미이며, 다른 미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은 강한 대조성을 갖지 않는 사랑스러움, 우아함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 E.V.하르트만은 순수미를 미적변용의 출발점으로 아직 변용의 출발점으로 아직 변용이 되지 않은 단순한 아름다움, 즉 단순미(das einfach Schöne)로 여기고,

18) 윤내한, 「산업디자인의 미적가치와 범주에 관한 연구」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4, pp.26-27

19) 다게우지 도우지, 안영길 외 역, 전계서, p.271

미적 구체화가 단계가 낮은 만큼 활동의 여지를 찾아내기 쉬운 미라고 하였다. 콘도 하르트만은 표출내용과 형성형식이 어떠한 모순 없이 완전하면서도 당연한 것으로서 적합하고 조화하는 것을 순수미라 하고, 이를 중심적인 미로 생각하였다. 이처럼 순수미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조화성, 직관성, 완결성, 무관심성, 쾌감성 등 미적인 것의 고유한 특질이 가장 선명하고 완전하게 구현되는 미(美)로, 완전한 조화 균형의 관계 위에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²⁰⁾

순수미는 단순한 감각적 쾌감보다 높으면서도 감각적인 것 자체로부터 직접 적의(適意)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대상이 마음에 들면 들수록 쾌의 인상이 완전하면서도 순수하게 된다. 순수 쾌감을 발생시키는 현실감각으로 미라는 것은 감각형식이 유기적 통일의 요구에 충돌 없이 적합하여 순수한 쾌감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사랑스러우며, 우아함을 특징으로 하는 미, 본래의 미로서 순수미, 단순한 아름다움으로 미적 구체화가 낮은 단계의 미로 활동의 여지가 많다.

또한 이상적인 미이며 순수미의 성격을 완전하고 선명하게 하는 객관이 포착하는 주관에 완전히 적응된 조화되고 합일된 상태로써, 관조하는 자아가 장애 없이 불쾌의 감정을 혼입시키지 않고서 완전히 충족한다는 점에서 모순이 가득한 현실로부터 가장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게 해준다.

순수미는 미적인 변용이 생기기 전의 단순미로 미적 구체화 단계가 낮은 것이다. 또한 관조하는 자아가 장애 없이 불쾌의 감정을 혼입시키지 않고서 완전히 충족하는 것이다.

<그림10>장푸케의 성모자²¹⁾의 마리아상을 확대 시킨 그림이다. 마리아는 순결하고 순수한 이미지의 여성의 상징이다.

20) 다게우지 도우지, 안영길 외 역, 전계서, p.272

21) 움베르토 에코, 『미의 역사』, 열린책들:서울, 2004, p.28



<그림 10> 장푸케, 「성모자」

2. 추 미(성격적)(Das Charakteristische)

경험주의 미학에서 제기된 것으로 광의의 미가 직접적인 만족을 차지한다고 하는 범위에서 특성적 표현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표현방법에 의해서 실현되는 미를 성격적이라 칭한다. 추한 대상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특성적 표현의 특성 때문이다. 추는 미와 달라서 대상 자체에서는 쾌감을 유발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표현된 추는 그 진실을 통해서 성격적으로서 충분히 만족 될 수 있게 된다.

어느 문화에서든 미의 고유 개념 곁에는 늘 추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고고학적 유물 속에서 표현된 것이 그 당시에 정말로 추한 것으로 여겨졌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대 서양인들의 눈에 다른 문화권의 부적이거나 가면은 끔찍하고 기형적인 존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주민들에게는 그것이 아직도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거나 과거에 그런 가치를 지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스 신화에는 파우누스, 키클롭스, 키마이라와 미노타우로스, 그리고 프리아포스 같은 신들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폴리 클레이토스와 프락시텔레스의 조각이 표현한 미의 규범에서는

기괴하고 이질적인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존재들에 대한 태도가 늘 혐오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플라톤은 대화편에서 미와 추에 대해 수없이 논의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도덕성을 논할 때에는 그의 외모가 실레노스 같다고 비웃는다.²²⁾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학 이론들은 추를 미의 반명제, 물리적이든 도덕적이든 미의 토대가 되는 비례의 규율을 침범하는 부조화, 혹은 한 존재가 자연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빠진 결핍의 상태로 생각했다. 어찌 되었든 거의 변함없이 지켜진 원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자. 즉 추한 존재와 사물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술은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 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방의 미는 추를 수용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칸트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고를 보여주는 증거들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고찰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혐오감을 주는 추는 존재하지만, 물리적, 도덕적 측면으로 이해된 추의 추함을 <아름답게>표현하고 공표한 예술을 통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심지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게 되기까지 한다. ²³⁾

추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다른 개념과의 관계 내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추는 미가 존재할 때에만 존재하는데, 이는 미가 추의 긍정적인 측면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가 없다면 추는 절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추는 미의 부정으로 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가 본래적인 신적 개념이라면 그것의 부정인 추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차적인 존재가 된다. 미가 미이기 때문에 동시에 추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미의 필연성을 형성하는 속성들이 정반대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림11>보통을 포옹하는 티타니아²⁴⁾의 모습은 사랑스럽다. 보통의 추한 모습은 티타니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욱 부각시켜준다. 자기 파괴로서의 미와 추의 이런 내밀한 관계는 추 스스로가 부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의

22) 움베르트 에코, 전제서, p.132

23) 상계서, p.133

24) 움베르토 에코, 전제서, p.319

토대가 된다. 즉 추는 미의 부정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미와의 모순성을 소멸시켜 다시 미와 동일체가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미는 추의 반란을 진압해 자신의 영역에 머물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러한 화해 속에서 우리에게 미소와 웃음을 자아내는 무한한 평화가 탄생한다. 추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혼합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성질로부터 자유스러워진다. 추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회극적이 된다. 이 회극성은 언제나 자체 내에 순수하고 단순한 이상을 향한 부정적인 순간을 내포하고 있다. 그와 같은 부정은 회극성속에서 현상으로 물로 환원된다. 긍정적인 이상은 회극적으로 인식되는데, 그것은 그것의 부정적인 표현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림 11> 요한 하인리히 뤼슬리,
「보통을 포옹하는 티타니아」

3. 우아미(Grace)

미의 근본 형태 중 한 가지 요소인 우아미는 전체와 질서를 이루며 미의 개념을 회상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조화로우며 바탕으로 하는 보편성을 가진다. 25)

립스는 우아미를 무의식적이며, 무의지적인 미라고 했다.²⁵⁾ 우아미는 미적 대상의 특성이 격렬하지 않고, 움직임이 유연하고, 자유로운 파상적 곡선 운동에 있다. 쉴러에 따르면 우아미는 초감성적 인격의 감정 표현이며, 이것은 의식적이 아니라 자연적임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우아미는 허위라고 하고, 진정한 우아미는 아름다운 혼의 표출이라고 보았다. 이런 마음의 혼은 신체, 용모, 거동 등의 움직임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우아미는 운동성의 특성이 있다.²⁷⁾

우아미에 있어 형상성의 근본조건은 섬세함과 연약함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로코코 스타일을 들 수 있다. <그림 12>²⁸⁾를 보면 립스가 강조한 우아미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우아미양식은 자연을 모태로 한 것으로 외양적인 것만을 강조하진 않고, 그것보다는 생물이 지니는 생존원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생존을 위한 디자인 작업은 자연 속에 내재된 유기적인 질서를 분석하고 의도적으로 인간의 목적에 맞게 적용함으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객관적이고 우연적인 운동의 미이면서도 인간 독자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의 신체적 운동도 정신의 표현으로 거기에 표현된 미는 도덕성을 함유한 광의의 인간적 태도에서 유래한다고 하는 견해로부터 우아미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성과 감성, 의무와 경향의 완전한 조화인 아름다운 혼(魂)의 현상에서 표출되는 우미를 찾았다. 또한 각종 예술에 있어 인간 형태의 섬세함 연약함 등의 대상적 특징을 구체적 서술한다. 우미는 동정과 사랑에 잘 결합하는 요소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우아미는 로코코시대 스타일 등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부터 발 끝까지 곡선적 라인이 살아나고 사랑스러운 파스텔톤의 색상들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25) Wolfhart Henk,ann외 김진수(譯), 『미학사전』, 예경출판사, 1998, p.258

26) 다게우지 도우지, 안영길 외 역, 전제서. p.206

27) 백기수, 전제서, p.123

28) 움베르토 에코, 전제서, p.238



〈그림 12〉 '그네'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

4. 숭고(Sublime)

인간이 느끼는 세련됨과 관련된 감정은 주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숭고함의 감정과 아름다움(美)의 감정이 그것이다. 아름다움의 감정이 대상의 질서와 조화, 그리고 규칙에 근거하는 반면, 숭고함의 감정은 인식 체계나 도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감정의 움직임이자 심미적 경험이다.²⁹⁾

고대로부터 '숭고'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어떤 대상에 대한 평화로운 관조가 아닌 압도적 감동을 체험의 본질로 하고 모순과 역설을 인식의 토대로 하는 미학적 현상을 지칭하여왔다. '숭고'라는 말은 본디 고전 철학에서 유래하였고, 고대에서는 인간능력을 초월하는 신적인 것을 표현할 때 숭고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신만이 숭고함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미학이 등장하면서 숭고는 토론과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주제가 되었다. 예술사에 있어 숭고는 감정과 의지를 중요

29) 김상봉 · 한국칸트학회 편, 『칸트의 미학』, 민음사, 1997, p.224

시하는 이른바 비합리주의적 예술사조의 중심범주로서 기능하였다. 이에 따라 숭고는 미의 이념이 관습화된 규범으로 화석화되어 새로운 예술적 창조의 가능성에 장애가 될 때 그 억압적 질서를 깨트리는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해 왔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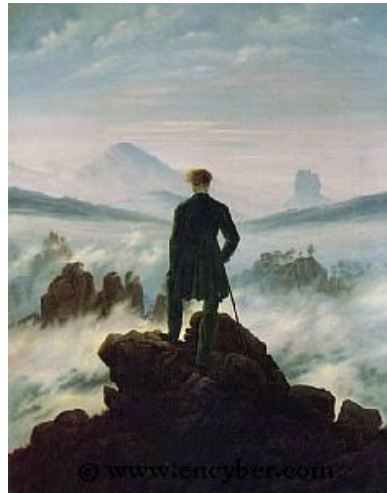
숭고의 개념이 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바로 리오타르(J. F. Lyotard, 1924-)의 “숭고와 아방가르드”에서 이다. 그는 숭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쁨과 고통, 즐거움과 두려움, 감정의 강화와 저하가 결합된 이 모순적 감정은 17세기와 18세기 유럽에서 숭고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 비규정적인 것을 나타내게 함과 동시에 사라지게 하는 이 모순된 감정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말까지의 예술적 반성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그리고 숭고는 근대를 특징짓는 예술적인 감성의 양식이다. 숭고의 미학과 더불어 비규정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19세기와 20세기 미학의 과제가 되었다.

리오타르는 칸트의 숭고가 지성의 두 가지 능력, 즉 사유능력과 상상력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본 것에 대해서 버크의 입장을 수용하여 거기에 시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버크의 숭고 개념이 세잔느의 작품과 현대의 예술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런 의미에서 현대예술을 ‘아방가르드’라고 명명했다.

<그림 13>³¹⁾은 잎이 다 떨어져 험벗은 나무와 황량하고 건조한 벌판, 폐허만 남은 수도원 등 적막하고 거대한 자연과 그 속에 존재하는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 숭고함과 정신적인 가치를 일깨워 주고 있다. 폭대기에 거침없이 한발 내딛은 남성의 모습과 안개 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자연의 깊이감이 어우러져 숭고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30) 안성찬, 「숭고의 미학-그 기원과 개념사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140

31) <http://100.naver.com/100.nhn?docid=897258>



〈그림 13〉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5. 비장(Tragic)

비극은 주요한 예술 형태였기 때문에 많은 연구 자료가 존재한다. 특히 희곡이나 연극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극미는 골계미(희극미)의 대립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일종의 비극미로서 골계와 대립되는 것이다. 이런 비극미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주장되었으며, 인간의 고귀한 행위와 의지로 성립되는 인간의 위대성이 침해되는 비통한 과정이며 결과이다. 즉 비장은 이러한 비통함으로부터 비롯되는 비극적 고뇌가 부정적인 계기에 의해서 감정이 강화되고 고양되는 가운데 성립되는 것이다. 이 비극미를 통해 인간은 대상과 분열 모순되어 있는 상태를 넘어서 나아간다.³²⁾

비장미는 침해되고 멸망하는 과정 및 결과에 있어 고뇌가 생기는 것이지만 이 부정적 계기에 의해 가치 감정이 한층 강화되고 고양되는데 일종의

32) <http://blog.naver.com/lemonade861?Redirect=Log&logNo=107002840>

특수한 미가 성립하게 된다. 감정의 고양은 흥분으로 이어지는데 미적표현은 여성의 관능적인 미가 강하게 보여 진다. 여러 감정들이 뒤섞인 느낌의 비장미는 미적 범주기보다는 윤리적 범주로 간주된다. 또한 순수한 미적 양태로서가 아니라 예술의 범주로 분류되며, 주체의 주관적으로 쾌, 불쾌의 혼합 감정이므로 비장을 숭고의 파생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피셔(Fischer)는 주장한다. 다른 한편 비애도 인접 영역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비장적 체험의 근거를 이루는 기분감정으로 여겨진다. 33)

<그림14>³⁴⁾는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이 한창 벌어지던 1937년 4월 6일, 나치가 게르니카를 폭격한 사건을 담은 그림이다. 전투로 인해 군인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던 사건을 거의 흑과 백 톤의 컬러만을 사용하여 비장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외적요소와 내적요소의 조화로 보는 이로 하여금 그 날의 참혹상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그림 14> '게르니카파블로', 피카소

6. 끌계

이것은 희극미로서 비장이나 숭고와 대립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끌계를 내용으로 하는 희극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보통인 이하의 악인을 모

33) 윤내한, 전제논문, p.32

34)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551

방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때의 악인은 우스운 사람을 가리킨다.³⁵⁾

골계는 타인에게 고통이나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일종의 ‘추’에 해당한다. 칸트에 의하면 웃음은 긴장했던 기대가 돌연히 무(無)로 바뀌면서 생기는 정서로서, 기대되었던 것과 실현된 것 사이에서 양적 또는 질적 모순을 통해 성립되는 미의 상태이다. 골계는 희극미로서 희극적인 것은 두 가지 현상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심리적, 생리적 현상에 의한 희극이고, 두 번째는 미학적 현상의 희극이다. 이 둘은 상이한 질서와 본성을 지닌 현상이다. 예컨대 우스운 것은 심리적, 생리적 현상이지만 희극적인 것은 미적 현상이다. 우스운 것은 신경적 자극에 의한 것으로 간지럼 탈 때의 웃음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희극적인 것은 극장에서 희극을 볼 때나 재치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오는 웃음이다. 웃음은 희극적인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지지만 우스운 것 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 희극적인 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인간의 특권인 데 반해, 웃는 능력은 인간만이 아니라 몇몇 고등동물들에게도 존재한다.³⁶⁾

골계(희극미)는 일반적으로 비극미와 대립개념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립스는 골계를 그 자체로서는 비극적인 것으로서 미의 양태라고는 보지 않는다. 립스에게 있어서 골계가 미적 가치를 획득한 경우의 양태가 유머이므로 그것은 숭고 혹은 적극적 가치가 있는 것의 골계적 부정에 의한 미로 분류하였다. 즉 숭고가 골계에 의해서 부정됨으로써 도리어 그 가치감을 한층 고양시키는 데에 유머의 미적 가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숭고의 고뇌에 의한 부정으로부터 생겨나는 비극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서는 골계를 이념에 대한 형상의 우월에 근거하는 숭고에 대립시킨다. 숭고가 미의 부정인 것에 비하여, 골계는 숭고의 부정이므로 말하자면 부정의 부정의 미이다.³⁷⁾ 즉 골계는 그 자체로 미적 쾌감이 아니고 숭고나 비극을 골계적 부정을 통해서 비로소 유머(Humor)라는 미적양태를 획득한다고 하였다.

골계는 주관적 체험에 있어서 마음의 경쾌화와 중압으로부터의 해방, 그

35) <http://blog.naver.com/lemonade861?Redirect=Log&logNo=107002840>

36) M.S.까간, 진중권 옮김, 『미학강의1』, 새길, 1989, p.206

37) 다케우찌 도시오, 『미학예술학사전』, 미진사, 1989, p.279

리고 정신의 자유성을 느끼게 하는 것임에 비하여, 비극은 중압, 존경, 공포의 감정을 생겨나게 한다. 또 비극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부정되는 데 대한 내면적인 일종의 반항감정이 일어나 인간가치의 진정함을 보다 깊이 체험할 수 있는데 반해서 골계의 부정에서는 예기치 못했던 돌연함 때문에 항상 일종의 놀라움이 수반되며 가치 요구의 공허함이 매우 명확하게 체험된다고 한다. 요컨대 골계는 기대된 것과 실현된 것 사이의 양적 또는 질적인 모순에 근거하는 미로, 그 주관적 체험은 기대와 현실과의 모순이 의식되고, 기대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던 심적 에너지가 급격히 흩어질 때에 생겨나는 쾌감이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그 의외성에서 기인하는 놀라움이나 환멸감들의 불쾌감이 주체의 정관적, 유희적 태도에 의해서 극복되는 바에서 성립하는 미적 쾌감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모순에 근거하는 대조감정이라고 보았다.³⁸⁾

이것은 객관적 골계와 주관적 골계로 나뉘며, 객관적 골계는 대상, 그 자체의 성질 및 형상에 입각한 골계, 이것이 이상성에 근거하는 외모의 골계, 착오적인 동작이나 행동에 근거하는 행위의 골계, 이러한 행위를 하기 쉬운 그 자체의 성격에 기인하는 성격이 골계가 그것이다.

주관적 체험은 기대와 현실과의 모순이 의식되고 기대에 의해 긴장하고 있던 심적 에너지가 급격히 흩어질 때 생겨나는 체험으로 의외성에 기인하는 놀라움이나 환멸감들의 불쾌감이 주체의 정관적 태도에 의해 극복되는 것으로 모순에 근거하는 대조감정이다. 기지(Witz)는 무엇과 관계 또는 반대되는 사상을 의외적인 면에서 급작스레 서로 연결시켜 교묘하게 표현하는데 특색이 있는 지적요소가 강한 것이다. 풍자(Satire)는 신랄한 조소나 비난으로 불합리한 사상에 대한 예리한 공격성이며, 아이러니(Ironie)는 긍정과 부정의 상호 침투적 성격과 야유적 기분의 기지적 표현으로 의해 표상내용을 암시하여 보여준다.

<그림15>,³⁹⁾<그림 16>⁴⁰⁾의 작품은 이탈리아의 화가 주세페 아르침볼도라는 궁정화가로 동물과 식물을 아울러 사람의 머리를 형용한 괴기한 환

38) 다케우찌 도시오, 상계서, p.279

39) <http://100.naver.com/100.nhn?docid=104474>

40) <http://100.naver.com/100.nhn?docid=104474>

상화로 골계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15> '여름',
주세페아르침볼도



<그림16> '채소기르는 사람'
주세페아르침볼도



제 3 장 미학적 가치변화에 따른 여성 Face Design 유형분류

제 1 절. 시대에 따른 여성 Face Design 유형

1. 모계사회의 Face design (꽃계미와 추미)

신체를 치장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와 그것에 변화를 주기 위한 시도로 인해 모계사회에서의 FACE IMAGE 는 다양한 신체장식등으로 미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모계 사회 뿐 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신체장식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를 반영하고, 인간의 발전 정도,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 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분명하지 않았던 원시 사회에서는 다른 민족을 이해하는데 신체장식은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 인간은 우리가 원시라고 부르는 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혼례, 위엄, 보호, 기원, 상징 등이 목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장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원시 시대에는 비정상적으로 비만한 여자가 미인이었다.<그림 17> '빌렌도르프의 비너스'⁴¹⁾라고 이름 붙은 유명한 이 조각품은 약 12cm의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여체를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나타냈다. 비너스란 미인의 대명사이고, '빌렌도르프'는 발굴된 지명이다. 이런 모습이 어째서 사실적이냐고 의문을 갖겠지만, 이 조각품은 거대 유방증인 비만 여성의 신체 모습을 3차원으로 측정하여 조각을 한 듯, 아주 정확히 재현해 놓았다, 흔히, 얼굴의 세부 묘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생산과 양육성을 '관념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한' 조각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조각품은 결코 관념적이지 않고 시각적으로 본 바를 그대로 재현한 조각품이다. 거대 유방증을 가진 여자의 체격, 비만증의 전신 증상이 극명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

41) 움베르토 에코, 전제서, p.16

었다. 이 조각품은 관념적으로 조각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조각가가 직접 본 것을 시각적으로 충실하게 재현한 것이다. 이 조각품을 전후좌우로 살펴보면, 사실적이기 때문에 비만이어도 자연스럽고 활력이 넘친다.

이 조각가는 분명히 이렇게 생긴 체격의 여자를 직접 본 적이 있고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기억해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구석기 시대에 이런 비정상적으로 비만한 여체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조각했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런 의문은 로마 시대의 <그림 18> 풍요와 다산의 여신 케레스⁴²⁾가 다유방증이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해소된다. 로마의 풍작의 여신 케레스는 가슴에 유방이 가로로 3개 또는 6개나 달린 여성으로 묘사된다.

실제로 이렇게 가슴에 유방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를 의학적으로 다유방증이라고 하는데, 학술적으로는 전신에 32개나 있는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⁴³⁾



<그림 17>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그림 18> 다산의 여신
케레스

43) 조용진, 전게서, p257

유방은 지방 세포와 유선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유선은 땀샘이 변하여 만 들어지고 태생 4주경 겨드랑이에서 서혜부까지 약 200개의 유두가 생겼다가, 점차 없어져 8쌍 정도가 남는다. 사람은 위로부터 4번째의 좌우 1쌍만 남게 된다. 개나 돼지는 여러 쌍이 남아 모두 유방이 되고, 소나 말은 살 쪽에 있는 몇 쌍만 남는 것이다. 8쌍 정도가 있다가 없어진 자리에 사마귀나 점으로 흔적이 남는 경우도 많으므로, 다유방증은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드물게 사람에게 나타난 이런 선천성 기형을 당시에는 숭배했던 것이다.

다유방증과 함께 거대 유방증도 숭배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 조각품의 이름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이지만 실은 구석기시대의 케레스였던 것이다. 비만한 체형을 좋게 본 나머지 거대 유방증을 신성시하여 이를 조각하고 신물로 대했다.

2. 종교 사회의 Face design 유형 (순수미)

종교시대의 미의 기준은 신이었다. 특히 기독교사회의 여성의 미적가치의 기준은 성모마리아의 모습이었으며, 신이 주신 소중한 몸을 치장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욕과 도전이었다. 또한 종교시대에는 모든 여성의 아름다움은 퇴폐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기독교세계에서의 여성의 아름다움은 순결과 정숙이었다. 본래 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계율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원죄를 지은 인간, 그중에도 여체는 신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로 생각되었다. 육체적인 것, 육체를 아름답게 보려는 모든 감성적인 것은 배격의 대상이다.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는 순결과 정숙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덕목이었으며 여성이 신체나 얼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치장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조물주가 자신의 모습을 본떠 인간을 창조하였으므로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신의 섭리에 속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신체에 변화를 주는 메이크업과 같은

행위는 음란한 것일 뿐 아니라 교만의 죄를 짓는 일이었다.⁴⁴⁾

중세 유럽, 특히 교황권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서 교회가 발휘한 영향력은 세세한 일상생활과 관습까지도 좌우할 정도로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회화와 메이크업도 그 종교적 특성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중세 회화는 교회의 보편적 권위에 얽매이는 정도가 아니라 조각과 더불어 이 보편적 권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 곧 종교적 상징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담당했다.⁴⁵⁾

이러한 종교시대의 아름다움에 대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이유로 인해 일어나 십자군 전쟁으로 서유럽에 화장품을 소개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1095년 첫 번째 십자군 전쟁 이후, 예루살렘은 무신론자와 십자군의 용사들이 가져온 아라비아산 향수와 화장품으로 넘쳤다. 기사들은 그들이 마주친 사람들을 야만인이나 더러운 사람들로 묘사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동경으로 가득한 동쪽나라의 관습의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유럽에서 머리 염색은 갑작스런 유행이 되었고, 귀족의 여인들은 마녀를 나타내는 붉은 색을 제외한 노란색 검은색 등으로 그들의 머리를 물들였다. 특히 노란색은 빛을 상징했고, 빛은 신을 상징했다.⁴⁶⁾

유럽의 여성들은 몸의 털을 속돌로 문질러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기사들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칫솔로 이를 닦았다. 발진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럽여성에게 의해 사용되는 허브 로션은 이제 얼굴크림으로 동양의 재료를 가하였다. 비록 교회는 화장품의 사용을 비난했지만, 부유한 여성들은 항상 미를 위해 여가시간을 충분히 즐겼고, 중세시대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인과 직공의 새로운 계급들은 그들을 아내들에게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여권을 마련해 주었으며 상업의 발전은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하였다. 여성의 외모는 로맨틱한 기사도의 상징을 유지하고 날씬하고 창백한 금발머리의 귀여움으로 기준화 되었다. 선호되던 얼굴 색은 백함처럼 흰색이었고 입술이나 볼은 장미처럼 붉은 색조였다.

44) 이숙연,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에 나타난 Make-Up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p.9

45) 이숙연, 전제논문, 2005, p.9

46) Sharon Romm, 김조용 외(譯), 『The changing face of beauty』, 군자출판사, 2002, p.206

종교시대의 여성들은 창백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사나운 기미를 멀리하기 위한 화장품의 사용하고, 매력 있는 창백함을 얻기 위해 밀가루 파우더로 그들의 피부를 칠하였고 밖으로 나갈 때는 베일로 그들의 얼굴을 덮었다. 몇몇 부유한 여성들은 계속 피를 흘려 안색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창백한 안색은 반대되는 밝은 색으로 입술이나 볼을 칠하면 더 창백해 보였다. 14세기 스페인 조각상중에서는 위로 올린 눈썹, 검은색 아이라인을 하고 입술과 볼을 붉은 색으로 칠한 성모 마리아를 보여주고 있다.⁴⁷⁾

3.부계사회의 Face design (우미)

부계사회에서 보여 지는 특징은 가부장적, 남성우월주의 사회생활로 인하여 아름다움의 기준이 남성의 이상향으로서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18세기 프랑스의 시각예술은 왕실의 자부심에 만족을 주는 미개물로서 변형하게 되는데 루이 15세의 통치기간동안 새로운 스타일의 예술이 그의 전임자의 걸치레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것을 rococo(로코코)라고 불리며, 프랑스어 racaille(로카이유)에서 유래한, 암석 작업이라는 뜻이다. 새로운 가구 세간들을 살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유쾌한 스타일로 그들의 집을 고쳐 장식했다. 사회 지도자들의 집은 소용돌이무늬와 곡선, 옅은 실크 휘장, 심각한 주제를 피하는 그림들로 장식되어졌다. 캔버스의 작품에서 표현된 여성들은 아름다움의 개념에서 로코코의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르네상스시대에 보여 지는 인물화는 남성들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여성상을 볼 수 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과 앵거스의 작품 속 모델은 부계사회의 미적가치의 기준을 잘 보여주는 한 예이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종교적 억압으로 인하여 여성의 치장이 법으로 금기시되었고 예술가들 또한 여성을 모델로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받아왔었다. 하지만 원거리 교역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동방의

47) Sharon Romm, 김조용 외(譯), 전계서, p.207

연금술 약학, 식물학 등의 지식 뿐 아니라 목욕, 식이요법, 마사지, 운동 등의 기법과 향료와 화장품의 사용 및 제조법이 유럽사회에 전해지고 왕족이나 고위층 인사가 아니면 만져보지 못했던 향료와 메이크업 재료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회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성들의 본능적인 욕구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물론 경제 성장과 도시 발전은 건축과 장식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계형 공인이라는 직업적 신물을 가진 자들이 작품 제작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예술가들로 변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과 작품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가들이 이제 오랜 기간 억눌렸던 현실 세계의 미를 원래의 자기 자리로 되돌리게 된다.⁴⁸⁾

이러한 외적 변인들 못지않게 가치관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세 말엽에 신이란 절대적인 존재에 비하면 인간이 보잘 것 없는 존재이지만 지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신의 창조물이라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형성되기 시작해 현실 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르네상스 시대 가치관으로 발전하였다. 강한 자아의식과 개성의 자각으로 인하여 르네상스 인들은 내세보다 현세의 삶을 찬양하게 되었고 인간 자체를 고유의 가치와 원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 ⁴⁹⁾가치관의 전환으로 사람들은 건강한 육체를 아름답게 여기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육체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꾸미기 시작했으며 아름다운 육체를 찬양하게 되었다. 인간 존엄성의 회복과 인체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힘입어 세속적인 일에 더 관심을 두에 따라 기독교가 금지한 행위들 중 하나인 메이크업도 다시금 유행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외출하는 여인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사교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⁵⁰⁾

역사 속 여성들의 미적가치의 기준중 하나는 명료성이다. 중세의 전성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미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비례성, 완전성, 그리고 명료성이 필수임을 상기시켰다. 명료성은 선명함 또는 광휘로 정의되기

48) 이숙연, 전제논문, p.10

49) 전선정 외 3인 공저,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청구, 2001, p.87

50) 장상숙·김훈, 「프랑스 절대 왕정 시대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역사적 의미 연구」, 『한국인체 예술학학지』 제7권 제3호, 2001, p.82

도 하는데 눈부시게 빛나는 사물들은 아름답다고 그는 말한다.

여성들은 눈부시게 빛나는 피부를 만들기 위하여 피부를 하얗게 표현하였다. 흰 피부를 표현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한 재료는 납으로 만든 연백(鉛白)이었다. 베네치아에서는 옷 길을 넓게 튼 옷을 입을 때 드러나는 가슴에도 분을 발랐으며 온몸에 분을 바르기도 했다. 심지어 얼굴과 노출된 피부에 회화용 안료를 발라 섬세하고도 창백한 모습을 연출하는 여인들도 있었다. 피부에 바른 흰 분은 얇게 발라도 부자연스러웠으나 여성들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주었다. 하얀 손을 원하는 여인들은 쓴 편두, 겨자, 벌꿀 같은 혼합물을 바르고 장갑을 끼고 잔 후, 아침에 빗물이나 안식 향 나무 기름으로 손을 씻었다. 붉은 산호, 기린혈(연분홍색의 나무진, 착색제 및 약제로 사용), 백포도주의 주석(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밑으로 가라앉는 물질), 갑오징어의 뼈, 복숭아씨, 계피 등의 가루 혼합물로 닦는 치아와 분을 바른 광택 없는 흰 얼굴은 귀족적 자태를 드러내는 순수함과 섬세함을 상징했다.⁵¹⁾ 물론 장미 빛으로 보이도록 볼을 붉게 칠하는데 쓰이는 연지가 상류계층 여성의 저녁화장용 필수품이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화장품 이외에도 취향에 따라 연백에 다양한 혼합물을 첨가하여 색조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주로 사용한 색채는 빨강, 파랑, 짙은 주황, 진보라, 갈색, 검정이었다.⁵²⁾

당시 이탈리아 여성들이 추구한 아름다움이나 메이크업에 대해 묘사한 문학 작품들이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그 시대에 유행했던 화장술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 보카치오는 ‘아주 작은 상아처럼 흰 치아, 천상의 것인 듯 한 가슴, 매우 섬세한 눈썹’을 칭송하였고 마키아벨리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넓고 투명한 정맥이 보이는 긴 손, 통통한 다리, 작은 발, 황금빛 머리카락’을 찬미하였다. 이상형의 여성은 라파엘로(sanzio Raffaello)나 티치아노(Veccellio Tiziano) 같은 이탈리아 화가들의 모델이 되었고, 화가들의 이상형과 거리가 먼 여성들은 두꺼운 메이크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감춰 남의 눈을 속이려 했다.⁵³⁾

51) D.Paquet, 지현 역, 『화장술의 역사』, 서울:시공사, 1998, p.48

52) 김경하, 전개논문, p.32

53) D.paquet, 지현 역, 전개서, p.47

부계시대의 컬의 구조는 절정에 달했다. 헤어의 구조와 디자인은 그 시대의 건축양식의 스타일이 반영되어 나타났으며 다양한 헤어 장식을 통해 헤어 패션을 보여주었다. 부계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인 루이 15세의 정부 퐁파두르 부인은 그녀의 자신의 머리를 100가지의 방식으로 정돈하였는데, 머리에 파우더를 바르고, 머리 그 자체로 광택이 나고, 뒤로 곧게 빗어 넘기고 귀를 보이고 목에 컬이 있는 헤어스타일로 그 시대의 왕족이나 귀족 부인들은 그녀를 따라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머리형으로부터 우아함을 표현하기 위해 머리를 높이 쌓아 올리고 여러 재료로 그것을 채우고 탄력성을 주며 그 측면에 커다란 컬을 정렬하고 정수리에 우아한 깃털과 꽃으로 장식을 하고, 우아함을 표현하는 등 우아함의 이면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그로 인해 가발과 헤어 쿠션, 헤어장식 등으로 미적가치관을 정립하였다.

4. 여왕시대의 Face design (송고미)

여왕시대의 나타나는 Face Image는 절대적 아름다움으로써 영국 군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나타난다. 영국은 그녀가 통치하는 동안 번영하였고 여성이라는 약한 이미지를 엘리자베스1세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격화함으로써 송고미를 내포하여 백성들을 압도하는 절대적 미의 기준을 정립했으며, 예술가와 작가들의 도움이 컸다.

많은 예술가들의 엘리자베스1세 여왕의 초상화를 보면 공통된 미적기준들이 나타나고 있다. 새하얀 피부와 화려한 보석 풍성한 머리카락의 표현 등은 현대 까지도 보편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상징인데 그것들이 의미하는 한 가지 특징은 ‘젊음’이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평생을 25살의 젊은 엘리자베스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존경하는 여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찬양하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과거시대에서 보이는 공통된 미적기준은 새하얀 피부이다. 고대 여인들도

새하얀 피부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호메로스는 그중에서도 특히 얼굴과 팔, 팔꿈치 등이 “상아보다 더 하얗다.”고 기록했다. 햇빛 한번 보지 않은 듯 한 새하얀 피부는 부를 상징했고 젊음을 상징하는 확실한 증거로 인식되었다. 특히 엘리자베스 1세는 남처럼 창백한 얼굴빛을 고집한 군주였으며 여왕의 얼굴은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새하얗다. 그런데 너무도 하얀 얼굴 때문에 치아가 누렇게 보이고 눈은 실제보다 더 작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차가운 인상을 풍겼고, 심지어 가면을 쓰고 있는 듯 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유처럼 하얀 피부는 고귀한 신분의 상징으로 통했다. 창백한 낮빛은 집안에 머물면서 들에 나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농부들의 피부는 그을린 갈색이었고 얼굴은 제 나이보다 늙어 보였다. 아름다운 부인들은 창백한 낮빛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외출 시에는 마스크와 모자, 베일로 얼굴을 보호했다. 그리고 여왕이 그토록 하얗게 분칠을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얼굴에 있는 마마자국과 좋지 않은 피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왕의 속사정도 모르는 당시 영국 여인들은 무작정 여왕의 화장법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남성들 까지도 새하얗게 분칠을 하고 다닐 정도로 여왕의 화장법은 유행했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엘리자베스 1세의 모습이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Pierp della Francesca 등 당대 화가들이 그린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 <그림 19>, <그림 20>⁵⁴⁾를 보면, 15~16세기 여성들 사이에서 눈썹과 헤어라인을 밀어 이마를 넓게 드러내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엘리자베스는 키가 크고 원래 창백한 안색과 풍부하고 물결치는 붉은 빛나는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단단하게 쥔 머리 형태를 좋아했다. 영국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어울리던 그렇지 않던 여왕의 색과 스타일을 모방했다. 1593년에는 수녀들조차도 파리의 거리에서 곱실거리거나 파우더를 뿌려 장식한 머리를 하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영국 궁정의 부인들 역시 머리에 파우더를 뿌리거나 엘리자베스 여왕의 자연머리 색과 어울리도록

54) <그림 19> <http://blog.naver.com/gkdmsdlect/20027615315>
<그림 20> <http://blog.naver.com/arribaaroa78/140103664352>

노란색으로 염색하였다. 검은 머리는 유행하지 않았다. 염색과 탈색은 일반적으로 유행에 앞선 여성들 사이에서 행해졌고, 탈색은 특히 금발을 좋아하는 이탈리아인들 사이에서 즐겨 행해졌다.⁵⁵⁾



<그림 19> ‘엘리자베스 1세 초상’
마르쿠스 헤라르츠



<그림 20> ‘엘리자베스 1세’
nicholas Hilliard

5. 여성성공시대의 Face design(비장미)

사회적 개혁과 전쟁은 여성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영국에서 선거권을 얻었고, 자전거를 타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 할 수 있었으며 대서양 외 양쪽편 어느 곳에서나 테니스 치는 여인들을 볼 수 있었다. 남성들이 군대로 다 끌려갔기 때문에 여성들은 일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집밖에서 새로 찾은 위치는 여성 매력의 기준을 바꾸게 한 여성들의 옷의 선택과 예절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고급 패션은 이러한 새로운 양식의 해방된 여성의 수요에 맞추어갔다. 단순하고 세련된 Paul Poiret(1879~1944)의 스타일은 얽매임 없는 여성의 체형의 매력을 증가시켰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⁵⁶⁾

55) Richard Corson, 김광숙 외(譯), 『Fashion in hair-The first five thousand years』, 동서교류출판사, 2010, p.174

56) Sharon Romm, 김조용외 4명 역, 전계서, p.106

1918년쯤, 전쟁시 남성의 일을 대신하게 된 여성들은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던 짧은 머리를 하기 시작하였고, 역설적으로 여성의 해방은 여성에게 화장품 사용을 더 하도록 만들었다.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도 머뭇거림 없이 화장을 했으며 담배를 피웠다.

모든 사람이 전쟁의 참혹함을 지우면서 경제적 붐이 일어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생필품의 부족현상도 곧 잊혀졌다. 1920년대에 기술은 레저의 활성화를 위한 옷과 기계를 공급하기에 충분히 발전되었다. 광고는 안락한 삶을 칭송하고 이상적인 여인의 개념은 시대와 함께 바뀌어갔다. 말괄량이(flapper)는 전후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이름(flapper)은 신발을 신고 채우지 않아서 걸을 때 펄럭 거렸던 고무로 만든 긴 덧신 타입의 신발 때문에 붙여졌는데, 이런 여성들은 짧은 단발머리, 평평한 가슴, 어린아이 같은 얼굴의 여성들은 품위 있는 Gibson Girl과는 대조되었다. 말괄량이 들은 아름다운 엉덩이도, 허리선도 원하지 않았고, 날카로움을 숨기는데 관심도 없었을 뿐 아니라 charleston을 밤새도록 춤추었기 때문에 생긴 알통 있는 다리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 흥분하기 쉽고 출썩대면서 소년 같은 말괄량이들은 자신의 삶을 재미있게 보내려 헌신했다. 57)

이러한 “신여성”은 제도를 위협하였다. 여성들은 담배를 피우며 정형화된 기존세대에 도전했다. 더욱 나쁜 것은 피임약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창피함도 없었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결혼에 구속되기보다는 대학교에 다니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뷰티 산업의 발전은 여성의 신분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해 왔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활동성 있는 새로운 신 여성상을 만들어 내고, 신여성상은 과거의 풍만한 여성성과는 달리 가슴도 작고 살이 없어 활동성이 강해 보이는 새로운 여성상을 나타나게 했다.

57) Sharon Romm, 김조용외 4명 역, 전계서, p.108

제 2 절. 시대에 따른 여성 Face Design 유형별 특성분석

1. 모계시대 Face Design 특성분석

자칫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모계시대의 여성상은 여성의 상징적인 부위가 과장되고 부자연스러워지면서, 그로테스크(Grotesque)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로테스크는 기괴하고 메스꺼우면서도 희극적이고 즐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것, ‘무섭게 소름끼치는 내용과 희극적인 표현 양식 사이의 충돌’이 빚어내는 감흥이다. 즉, 그것은 대상과 지각 주체의 반응 모두에 관계되는 바, 쾌와 불쾌, 웃음과 공포와 같은 불가능한 이질적 요소들이 대립적으로 혼재해 있는 이미지, 양식 또는 사건을 지칭하는 동시에 그것이 특정 반응, 즉 호기심과 혐오감의 양극을 왕래하는 주체의 엇갈리는 감흥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질성, 양면성, 복수성의 공존과 충돌로부터 그로테스크 미학이 성립되는데, 그것은 과대, 과장, 과도 과잉과 같이 정도가 지나친 초과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상의 상태를 벗어나는 과장과 극단은 그로테스크의 전형적인 속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로테스크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불편함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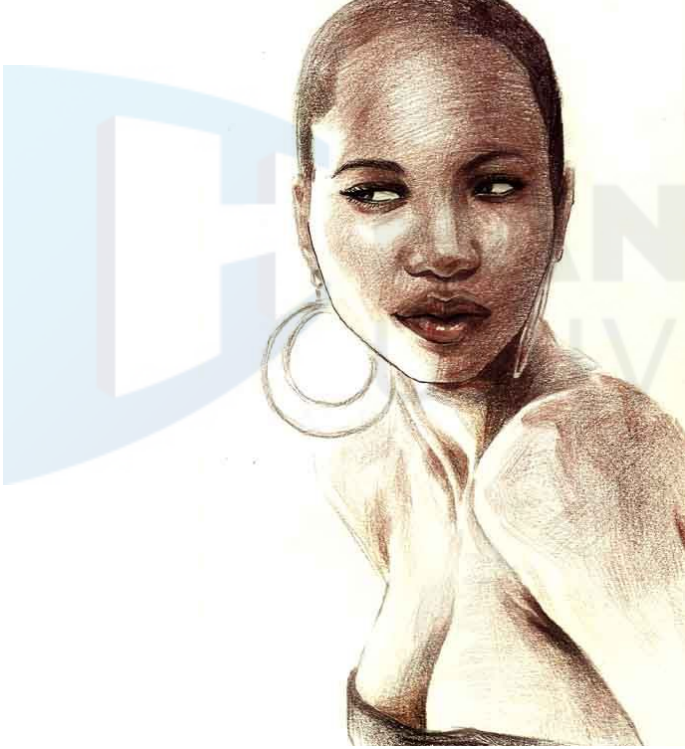
본 연구자는 이러한 골게미적 특성을 가지고 [표 4]에서 골게미의 표현을 과장스럽게 표현한 모계시대의 미적가치를 현대여성으로 재해석해보았다. <그림 21>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은 현대 여성의 기준에서 벗어난 과장의 상태에 가깝다. 풍만하다 못해 늘어진 유방과 큰 엉덩이는 현대여성의 미적가치와는 거리감을 <그림 22>으로 재해석해 보았다. 검은 피부톤을 강조하고 원시적 느낌을 내기 위해 조각상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 표현하였다. <그림 23>은 현대 여성에게 나타나는 골게미 스타일을 이미지 맵으로 정리 하였다. 골게미적 표현의 헤어의 표현은 과대, 과장을 통하여 이질적인 느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그림 24>영국의 가수이자 작곡가인 Beth Ditto⁵⁸⁾를 보면 진한 화장과 Red 계열의 헤어 컬러가 잡지의 배경색과 미적으로 잘 어울려져 표현되어있다. 추(醜)에 가

까운 비만형의 몸매를 보여줌으로 섹시함과 여성미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골계미는 전반적으로 저명도 색상이 주로 사용되며 고명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비비드(Vivid)색상의 조화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58) <http://blog.naver.com/musicarian/60088910099>

[표 2] 모계시대의 골게미 얼굴디자인 사례 : 본인 작품 중심으로

 <그림 21> 골게미 Face image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Color: Freesia, red bud, slate black, pink tint, sahara sands Image: 정제되지 않은 듯 한 멀티-브라이트한 색상의 조합으로 원시적 느낌을 대담하고 미숙한 느낌으로 나타낸다. Make-up: 전반 적인 메이크업의 아웃라인의 강조로 대담한 메이크업 패턴을 표현한다. 장난기 가득한 과장된 골게미·추미를 나타낸다. Hair style: 원시적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 머리형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로 연출하였다. 두피부분의 빈 곳을 메이크업해 줌으로써 볼륨감 있는 명암을 만들어준다.
 <그림 22> 골게미 FACE DESIGN :본인 작품	

[illegible]

– 43 –

[표 4] 모계시대의 얼굴이미지 연구: 현대 뷰티산업에서 나타나는 사례 중심



(출처:<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475546>,
<http://www.gettyimageskorea.com>)

<그림 24>처럼 현대 뷰티 산업에서는 과감한 노출과 과장된 이미지로 여성의 관능적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타투와 과감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패션보다 더 그로테스크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사로잡는다. 대부분의 패션광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자신을 강하게 표현해주고 심리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싶을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 방법이다. 스마트 워크시대에서도 탈젠더화의 영향으로 골계미와 추미의 표현 양식들이 나타나고 있다.

2. 종교시대 Face design 특성분석

비록 교회는 화장품의 사용을 비난했지만, 부유한 여성들은 항상 미를 위해 여가시간을 충분히 즐겼고, 중세시대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인과 직공의 새로운 계급들은 그들을 아내들에게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여권을 마련해 주었으며 상업의 발전은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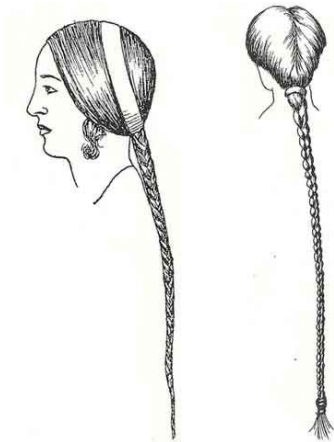
14세기 기독교시대에는 땡은 머리가 유행하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었으며, 귀 위쪽으로 감아올리는 스타일이 특히 인기가 있었다. 때로는 감아 올린 부분이 드러나게 하였고 때로는 크레스핀(crespine) 혹은 크레스피네트(crespinette) 속으로 넣었다. 종종 땡은 머리를 감아올리는 대신에 아래로 늘어뜨리기도 하였다.⁵⁹⁾

<그림 27>,<그림 28>⁶⁰⁾처럼 머리는 일반적으로 가운데에서 가르마를 땀고, 스타일에 따라서 가짜 머리를 사용하였다. 때때로 면이나 모를 패드로 사용하기 하였고, 깃털을 사용하였으며, 머리염색 역시 행해졌다. 물론 성직자는 이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위협도 가했지만, 효과가 전혀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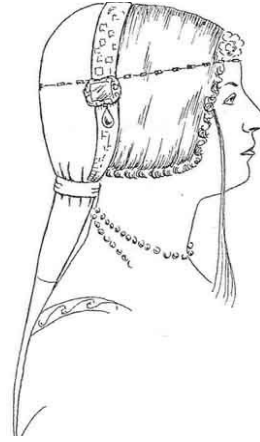
59) Richard Corson. 김광숙 외 4명 역, 전계서, p.108

60) 상계서, p.151, p.159

었던 것으로 보인다. 커닝톤(cunnington)에 따르면, 14세기 전반부에 영국에서는 아이 처녀, 신부, 즉위식의 영왕(이들의 경우는 길게 기르고 묶지 않았다)을 제외하고는 모두 머리를 감추었다고 한다. 개방식 터번을 쓸



<그림 27> 중교시대의
헤어스타일



<그림 28> 중교시대의 헤어스타일

경우는 부분적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이 시대에(1320년대 이후)여성들은 이마를 높고 넓게 보이기 위하여 앞쪽 헤어라인의 털을 뽑고 면도하기 시작하였다. 14세기의 후반에 노르만족의 기사가 그의 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너희들은 원래 타고난 이마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하려고, 눈썹으로부터 혹은 관자놀이 혹은 이마에 난 털들을 쥐어뜯지 마라, 릭시비엄(lixivium)비누이상 비싼 것을 사용하여 머리를 감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의 딸들은 순종하였을지 모르나. 다른 여성들은 그 후 200년 동안 털 뽑기를 계속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여성의 외모는 로맨틱한 기사도의 상징을 유지하고 날씬하고 창백한 금발머리의 귀여움으로 기준화 되었다. 선호되던 얼굴색은 백합처럼 흰색이었고 입술이나 볼은 장미처럼 붉은 색조였다. 61)

[표 5]에서 중교시대 얼굴디자인<그림 30>은 그 시대의 창백한 안색을 표현하기 위하여 푸른빛이 도는 피부표현을 한 뒤 반대되는 밝은 색으로 입술이나 볼을 칠하며, 아이메이크업은 깨끗한 눈을 더욱 돋보이게 화이트

61) 상계서, p.108

아이새도우로 눈 앞머리와 이목구비를 강조하되 지나친 새딩은 피해 종교 시대 이미지를 나타낸다. 헤어 스타일은 초상화의 여인의 두상의 형태는 살리면서 모던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현대여성으로 표현하였다. 어두운 색상의 메이크업보다는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순수미를 강조했고, 전반적인 색상은高明도 톤의 저채도 색상이 주로 사용되어 표현하며 이지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머리는 거의 13세기 말 까지 감추어졌고, 그 이후 머리를 드러내는 유행이 생겼다. <그림29>의 젊은 여인의 초상에서 보이듯이 이 시대 여성들은 헤어라인의 머리카락은 뽑아 높은 이마를 드러내보였으며 머리카락은 베일이나 모르티에(mortier)와 결합된 망토니에르에 감싸졌다. 13세기 말 여자들은 머리 양쪽으로 땀은 머리를 귀 위쪽으로 감아올리기 시작하였고 이 스타일은 다음 세기에 대중화되었다. <그림 30>은 현대여성으로 Face design한 사례이다. 가려진 머리는 드러내어 포니테일로 표현하여 머리형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표 5] 종교시대의 순수미의 얼굴디자인 사례 : 본인 작품 중심으로

	Color: powder sky, charm purple, pale jade, warm silver, dark blue green, lilac cloud Image: 모던함과 클래식한 중세 기독교적 이미지 Make-up: 창백한 스킨 표현에 강한 아이라인과 립 스틱을 대조하여 중세적인 느낌을 표현한다.
<그림 29> 종교미의 Face Image	Hair style: 젊은 여인의 초상의 헤어장식의 형태를 포니테일형태로 변형하였으며, 한올 남김 없이 빗어 넘긴 헤어라인을 정돈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그림 30> 현대여성의 종교미 Face Design :본인 작품	

[표 6] 순수미 헤어 스타일 이미지 맵



<그림 31> 현대여성에게 나타나는 순수미 스타일 이미지 맵

(출처: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475546>,
<http://www.gettyimageskorea.com>)

[표 7] 종교시대의 얼굴이미지 연구 ; 현대 뷰티산업 사례 중심으로



(출처:<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475546>,
<http://www.gettyimageskorea.com>)

순결과 정숙을 미의 기준으로 삼았던 종교시대의 미적가치는 현대 여성에게 차분하고 지적인 이미지의 여성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일을 쓴 듯한 머리 형은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차분하고 품위있어 보이는 분위기가 연출된다. 또한 색상 중 화이트와 블랙의 무채색은 종교시대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상징색이다.

3. 부계사회 Face design (우아미)

우아미는 미적인 것이 내용상 크기나 힘에 관계되지 않고, 인간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반하는 양자가 조화적 균형을 이룰 때 성립되며, 격렬하거나 자극적인 급변적 동태가 아니라 유연하고 자유로운 파상적인 자유운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내적 모순이 없고 조화적, 긍정적이면서도 온화하고 원만한 쾌를 환기하는 특성이 있다⁶²⁾ 뷰티분야에서의 우아미의 이미지는 성숙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상류계층의 상징이자 보수적이며 클래식한 감성이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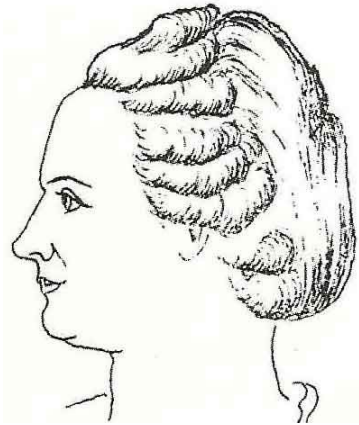
컬의 구조는 헤어스타일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건축에서 재현된 그리스 양식이 헤어스타일에 반영되면서 세련된 부인들은 리본, 진주, 보석과 꽃과 장식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식을 헤어패션에 사용하였다.⁶⁴⁾

루이 15세의 정부 퐁파두르 부인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머리카락을 부풀리지 않고 뒤로 빗어 넘긴 우아하고 깔끔한 머리형으로 앞이마를 내놓고 얼굴 둘레에 후광을 주어 스타일링 하기도 했다. 루이14세의 정부 퐁탕주스타일은 <그림 36> 철사틀에 얹은 린넨이나 레이스를 주름잡아

62) <http://blog.naver.com/why1985?Redirect=Log&logNo=50074770397>

63) 김은애 외, 『패션소재 기획과 정보』, 서울:교문사, 2000, p.44

64) Richard Corson, 김광숙 외(譯), 전계서, 2010, p.337



<그림 35> 풍파두르 스타일



<그림 36> 풍탕주 스타일

썩은 장식을 앞머리 부분에 층층이 탑처럼 올려 다이아몬드나 진주를 박은 편을 꽃아 마치 부채를 편 것 같이 보이게 하는 스타일이다.

<그림 37>의 <Ginevra de benci>의 초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바로 이전까지의 초상들은 두껍고 짙은 건조한 질감의 흰 피부를 드러낸 여인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으나 밀라노의 이 아름다운 귀족여인은 살아 숨 쉬는 맑고 투명한 자연스런 피부 메이크업을 선택했다. 코 부분이나 입술 부분보다도 길이가 더 짧아진 이마에서는 높고 빛나는 이마를 선호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얇은 수평형 눈썹에 쌍꺼플선을 짙게 강조하고 흑갈색으로 그라데이션을 한 다음 눈동자 주위를 밝게 하이라이트(Highlight) 처리한 아이 메이크업 패턴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 방식은 눈매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새로운 입체 표현법으로 현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응용하는 아이메이크업 패턴 가운데 하나이다. 얇게 미소 띤 입술은 수평형 인커브 스타일로 귀엽고 사랑스런 분위기를 나타낸다. 볼 뼈 위로 사선으로 펼쳐진 볼 메이크업이며 눈 밑 볼 부분을 하이라이트 처리한 수법도 현대 메이크업에서 기본 테크닉으로 이용하는 낯익은 표현법이다. 섬세한 피부의 질감, 입체감을 주는 표현기법, 개성을 드러내는 표정이나 동작이 두드러진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지금까지 살펴본 어느 여인의 초상보다 생동감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 초상화에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시도한 빛과 그림자 처리 방식이

나 그라데이션 수법, 색조 처리 과정은 현대 메이크업에서 추구하는 기본 원칙을 그대로 보여준다.⁶⁵⁾

베일로 머리를 감싸고 이마 둘레를 검은 띠로 장식했으며, 가운데 가르마를 탄 갈색 머리카락을 투명 천으로 고정시킨 헤어스타일은 지네브라 데 벤치의 헤어스타일과 더불어 금발 선호 경향을 탈피한 새로운 풍조를 반영한 그림을 [표 8]에서 얼굴을 감싼 듯한 보브형 헤어스타일로 표현해 보았다. 우아미적 표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밝은 톤의 헤어컬러, 부드러운 헤어질감으로 나타내었다.

두 번째 인물화는 [표 9]에서 가브리엘 테스트레와 그녀의 동생이라는 작품 속 가브리엘 테스트레를 분석해보았다. 프랑스의 왕 앙리 4세가 가장 총애했던 공식 정부로서 왕비의 자리에 까지 오른 여인이었지만 4번째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고 만다. 회화 속 가브리엘 테스트레의 피부는 차가운 상아빛 피부로 표현되어 붉은 입술과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명료성을 부각되어 표현되었으며 헤어스타일의 형태는 우아한 볼륨감을 살린 업스타일로 우아미적 표현이 돋보인다. 현대 여성에게도 이러한 헤어스타일의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으며 인위적인 볼륨감보다는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선호하고 있다. 메이크업의 표현 또한 인형같이 하얀 피부보다는 본래 가지고 있는 피부컬러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세 번째 [표 10]에서 키르케를 닮은 해밀턴 부인 속 여인은 넬슨 제독의 영원한 연인이었던 여성이다. 붉은 기운이 감도는 다크 브라운의 헤어 컬러와 물결형태의 업스타일은 계란형의 얼굴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처진 형의 큰 눈, 붉은 계열의 두꺼운 입술, 브라운 계열의 아이섀도와 장밋빛이 감도는 볼은 여성적 매력을 극대화 시켜 보여준다. 현대 여성의 얼굴디자인의 표현에서는 헤어스타일을 위쪽으로 강조하였으며 볼륨감을 살리되 해밀턴 부인의 물결형태의 웨이브를 착시효과를 보는 것처럼 살짝 나타내 주었다. 인위적인 붉은 입술의 톤을 다운 시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표현해 보았다.

65) 이숙연,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에 나타난 Make-Up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70-71

[표 8] 부계시대의 우아미 얼굴디자인 사례1 : 본인 작품 중심으로

	Color: beige, olive green, soft peach, pale gray Image: 성숙한 여성미와 지적인 이미지에서 보여 지는 가공되지 않은 천연자연의 느낌의 컬러와 내추럴하고 미니멀한 모던컬러가 나타남. Make-up: 살구 빛을 머금은 에크루(ecru)계열의 피부표현, 전체적으로 미니멀한 메이크업에 옅은 톤으로 투명함을 강조, coral pink, pale blue, gray, soft peach색상의 아이메이크업 포인트로 성숙한 여성미를 강조한다. Hair style: 체칠리아의 지적인 이미지와 순결한 이미지를 보브형 단발의 깨끗한 이미지로 현대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그림 37> 우아미의 Face Image,	 <그림 38> 현대 여성의 Face Design :본인 작품

[표 9] 부계시대의 우아미 얼굴디자인 사례2 : 본인 작품 중심으로

 <그림39> 우미의 Face Image	Color: light gray, vanilla, oak, atmosphere, cactus, brownie Image: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자연에서 얻어진 오가닉한(organic)색상들이 모던하게 품어지면서 노스텔직(nostalgic)한 이미지. Make-up: 눈 덮인 풍경 같은 피부표현은 차가운 파스텔계열 mint cloud 계열로 표현, eye make-up 은 biscotti, oak의 sandy한 컬러들을 강조하고 모든 새도우컬러는 진주빛갈의 터치로 마무리한다. Hair style: 자연에서 얻어지는 우아한 곡선미의 연출을 통하여 우아한 up style을 제안해본다. 상향에 중심이 있는 헤어스타일은 액티브한 여성미를 느끼게 해준다.
 <그림 40> 현대여성의 우미 Face Design :본인 작품	

[표 10] 부계시대의 우아미 얼굴디자인 사례3 : 본인 작품 중심으로

	Color: light sand, dusty orange, lime green, tanned, peach nougat, bronze brown Image: brown톤의 색감배열과 자연의 내추럴 컬러의 배색으로 꾸미지 않은 듯 한 고풍적인 여성성을 보여준다. make-up: 내추럴리즘과 자연주의의 조화로운 메이크업, 브라운 컬러의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되는 아이메이크업은 깊이감있게 표현하여 여성의 우아함을 강조한다. hair style: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듯 한 웨이브의 세미업스타일을 풍성하게 부풀려 윤곽은 그대로이지만 무게감이 상향으로 가면서 귀족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림 41> 우미의 Face Image	 <그림 42> 현대여성의 우미 Face Design :본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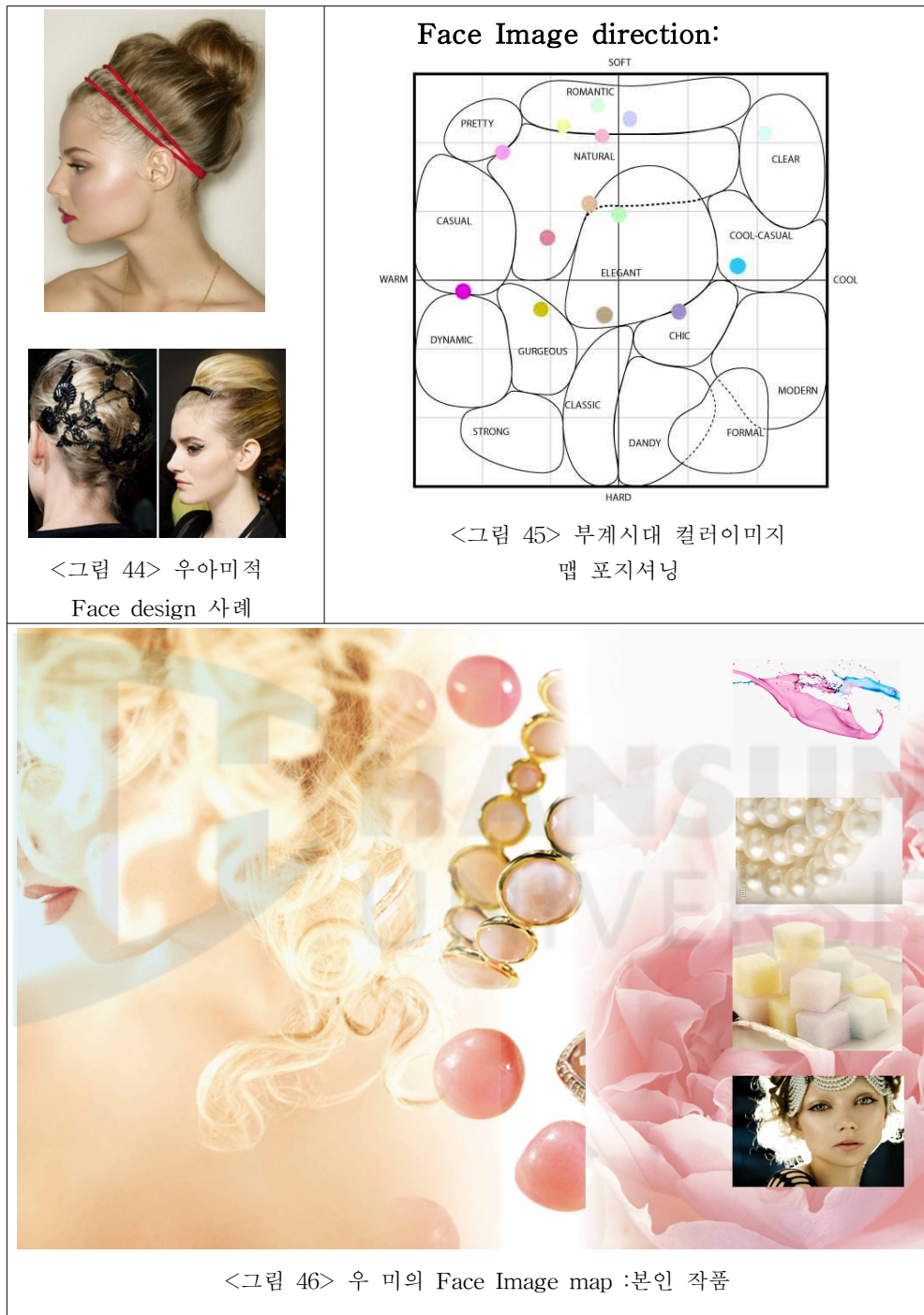
[표 11] 우아미 헤어 스타일 이미지 맵



<그림 43> 현대여성에게 나타나는 우아미 스타일 이미지 맵

(출처:<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475546>,
<http://www.gettyimageskorea.com>)

[표 12]부계시대의 얼굴이미지 연구; 현대 뷰티산업 사례 중심으로



(출처:<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475546>,
<http://www.gettyimageskorea.com>)

[표 11]는 현대 여성에게 나타나는 우아미 스타일을 맵으로 만들어 나타낸 것이다. 사랑스럽고 어린아이같은 색상(Pale, Bright)이 주로 사용되며 로코코양식과 흡사한 경향이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 패션이 나타난다.

현대 여성들에게 우미적 미적가치관이 보편적으로 정립되어 있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식이다. <그림44>에서 보여지는 검은색 무늬의 헤어장식은 로코코시대의 대표적 무늬라고 할 수 있다.

4. 여왕시대의 Face design (송고미)

송고미는 현실적인 것을 긍정하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기에 그 이상의 위대하고 탁월하며 위엄, 장중, 심원, 완결, 완성, 걸출, 위풍당당, 미증유(未曾有), 강력한 것일수록 극대화된다. 특히 여성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패션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효과적으로 꾸미는데 과거에는 그러한 양상이 더 심했다. 흰피부와 거대한 헤어스타일, 움직이기도 불편한 옷은 일을 하지 않는 왕과 귀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특히 여왕시대의 Face image의 표현은 극대화되는것이 특징이다.

특히 엘리자베스 1세의 여왕은 죽는 날까지 젊음을 추구하던 대표적 여인이다. 모든 여성들이 젊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늙어가는 자신의 피부를 감추기 위한 극단적인 메이크업과 머리를 위로 빗어 넘겨 풍성함을 주기 위해 패드를 사용하여 부풀리기도 하고 가발을 수집하여 풍성한 머리를 표현하였다. 단단하게 쥔 머리카락을 좋아하였으며 보석들로 자신을 치장해 화려함 속 세월의 추함을 감추었다.

고대시대의 무트네젬트 여왕의 <그림 48> 헤어스타일은 인모로 만든 가발로서 단단하게 땀은 머리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크고 길었으며 상류계층만이 사용할 수 있었으며 여왕들은 성별의 구별을 피하기 위하여 가짜 수염을 사용했었다.⁶⁶⁾ 이렇듯 여왕시대에는 송고미의 높고 커다란 힘이 느껴지는 강렬한 이미지가 극대화 되어 표현되었다.

66) Richard Corson, 김광숙 외(譯), 전계서, p.29



<그림 47> 엘리자베스 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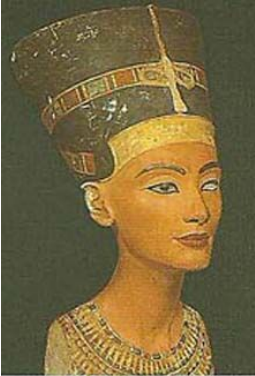
<그림 48>무트네젬트 여왕

[표 15]은 현대 광고 사진에서 보여지는 숭고미적 이미지들을 맵으로 정리한 그림이다. 컬의 극대화를 통해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0>은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를 현대여성으로 재해석해 보았다. 비비드 색상의 헤어장식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볼륨감이 극대화된 업스타일을 나타내보았다. <그림 51>은 네페르티티 조각상을 현대여성으로 재해석해 보았다. 머리의 왕관을 꿈틀거리는 듯한 가발로 표현해내어 강렬한 인상을 나타내보았다. 카키계열의 색상과 브라운 계열의 색상으로 이집트여왕의 메이크업을 표현했다. burgundy, rose gray, orange, dull purple등의 관능적이고 풍부한 아름다움을 입술에 강조하여 자신감 넘치는 여성상을 나타내며, 과감하게 강조한 아이메이크업은 카리스마틱한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준다. 헤어스타일은 귀족적 분위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상향위주의 업스타일로 orange컬러의 헤어장식을 통해 패셔너블한 현대여성상을 나타냈다.

[표 13] 여왕시대의 숭고미 얼굴디자인 사례1 : 본인 작품 중심으로

	Color: cradle pink, ultramarine, geranium, lavender gray, mother of pearl Image: 진한 농도의 컬러와 화려한 컬러의 터치로 풍부한 관능미를 표현 makeup: 여왕의 절대적 아름다움을 화려하면서 은은한 울림으로 멀티 컬러 믹스를 통해 고급스러운 컬러(골드, 실버, 메탈릭컬러)를 터치하여 표현 한다. hair style: 풍성하고 볼륨감 있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 컬링을 강하게 넣어 귀족적인 upstyle을 제안해보았다. 인물화속 헤어액세서리는 실로 짠 헤어밴드로 표현하여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
<그림 49> 숭고미 Face Image. 엘리자베스1세	 <그림 50> 현대 여성의 Face Design 연구 사례 :본인 작품

[표 14] 여왕시대의 숭고미 얼굴디자인 사례2 : 본인 작품 중심으로

	Color: scarlet poppy, coral peach, ripe plum, bijou blue, azalea, kaki Image: 여성본능의 표현을 위하여 꿈틀거리는 컬러, 느낌과 감정의 특징적 요소를 상징적으로 표현. Make-up: 아이라인을 강조하여 강한이미지의 여성상을 보여준다. 펄감이 있는 카키색과 주황빛 아이섀도의 대조적 조화는 흥분감을 더해준다. Hair style: 꿈틀거리는 헤어피스로 과거 네페르티티상의 헤어스타일을 연출한다. 상향의 헤어스타일은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
<그림 51> 숭고미 Face Image 네페르티티 상	
<그림 52> 현대 여성의 Face Design 연구 사례 :본인 작품	

[표 15] 여왕시대 헤어스타일 이미지 맵



<그림 53 > 현대여성에게 나타나는 숭고미 이미지 맵

(출처:<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475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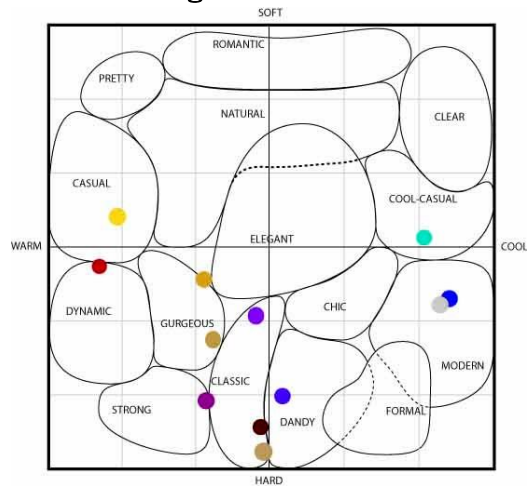
<http://www.gettyimageskorea.com>)

[표 16]여왕시대의 얼굴이미지 연구: 현대 뷰티산업 사례 중심으로



<그림 54>
뷰티산업에서 나타나는
송고미의 사례

Face Image direction:



<그림 55>송고미 컬러이미지 맵 포지셔닝



<그림 56> 여왕시대의 Face image Map :본인 작품

(출처:<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475546>,
<http://www.gettyimageskorea.com>)

송고미에서 나타나는 미적이미지는 누구나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지배자의 이미지가 강하다. 사진을 보면 큰머리의 헤어스타일과 놀란 듯 세워져 있는 옷깃, 다양한 색상의 메이크업은 당당해 보이는 모델의 표정과 함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현대여성들에게도 이러한 이미지가 보이고 있는데 지적인 이미지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5. 여성성공시대 Face Design(비장미)

비장미의 출발점이 되는 현실적인 것은 불만스러운 현실이다. 부당하게 억압되어 있는 생활, 용납할 수 없는 허위로 가득 찬 정치, 비인간적인 사회 등이다. 따라서 비장미는 체제 비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가혹한 현실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현실 극복의지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비장미적 가치는 남성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없었던 제 1차 세계대전시대에 나타나는데, 집안일만 하던 여성은 먹고살기 위하여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성성공시대의 시작이었다.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모든 것들이 여성들에게 나타났다. 짧은 헤어스타일, 코르셋 없는 활동하기 편한 패션, 메이크업, 담배, 술 등 여성들은 점점 더 다양한 미적가치관이 정립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낸다.

19세기의 변화는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영향을 끼쳤다. 대부분의 여성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유형이 대부분이었지만 많은 여성들이 그런 유형과 반대로 코르셋을 벗어 던지고 긴머리를 자르면서 여성들은 자신들을 구속하는 것을 벗어던지고 순종적인 스타일에 반대를 주장하게 되었다. 꽤 많은 여성들이 남자들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미의 기준을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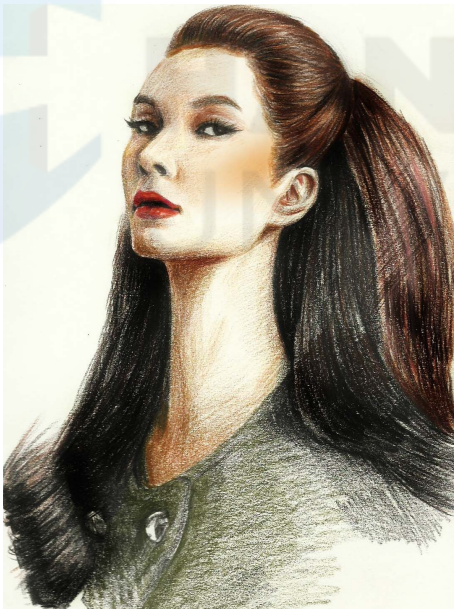
헤어스타일의 변화 또한 여성성을 대표하던 긴 생머리와 풍성한 곱슬머리를 잘라버리고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던 짧은 머리를 하기 시작했고 보브형 단발과 다양한 헤어커트를 통하여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을 연출 하였다.

<그림 58>는 클림트의 ‘살로메’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살로메의 볼륨감 있는 헤어스타일을 현대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표 1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비장미적 스타일은 강한 여성의 이미지로 나타나며 상승형 헤어스타일과 거친 질감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메이크업은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상이 주를 이루며 팜프파탈의 이미지를 연출 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

[표 17] 비장미적 Face Image는 거친 듯 한 남성미를 여성적 관능미로 승화시켜 개성이 강한 여성의 이미지다. Face의 날카롭고 강한 윤곽의 강조와 어두운 색조의 섬세한 믹스를 통하여 비장미적 Face image를 표현한다. 풍성하고 거친 듯 한 헤어스타일과 꿈틀거리는 듯한 머리표현은 활동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나게 한다.



[표 17] 여성성공시대의 비장미 얼굴디자인 사례1 : 본인 작품 중심

	Color: lilac marble, deep orchid, fiery red, navy blue, chalk blue, white jade, golden poppy Image: 다듬어지지 않고 극대화된 남성적인 이미지 Make-up: 스킨 톤에 가까운 토퍼리한 메탈 컬러 계열의 신비로운 조화, 벨레스크(bulesque)적인 조금 덥하고 다크해진 레드 컬러 계열, 청키쉬한 코랄 컬러 계열들과 다크톤의 블랙 셰이드, 산화된 듯 한 베이지 컬러 계열은 꾸뛰르 느낌의 퓨셔, 로얄 퍼플과 함께 사이버적인 감성과 함께 감춰진 인간의 욕망을 역동적으로 표현해준다.
<그림 57> 비장미 Face Image	Hair style: 살로메의 풍성하고 약간 흐트러진 듯 한 느낌의 관능적인 헤어스타일을 우하하게 흘러내리는 풍성한 느낌의 헤어스타일로 표현하였으며 브라운 계열의 헤어컬러의 톤 대비를 통해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해준다.
 <그림 58 > 현대여성의 비장미적 Face Design 연구 사례 :본인 작품	

[표 18] 비장미 헤어 스타일 이미지 맵



<그림 59> 현대여성에게 나타나는 비장미 스타일 이미지 맵

(출처:<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475546>,
<http://www.gettyimageskorea.com>)

[표 19]여성성공시대의 얼굴이미지 연구: 현대 뷰티산업 사례중심으로



(출처:<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475546>,
<http://www.gettyimageskorea.com>)

제 5 장 스마트워크시대의 Face Design Direction

제 1 절 스마트 워크시대의 Face Image

1. 시물라르크, 시물라시옹

시물라르크(Simulacre)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혼란해진 상태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낸 인공물을 의미한다. 들뢰즈는 시물라르크를 순간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우주의 모든 사건 또는 자기 동일성이 없는 복제를 가리키는 철학 개념으로 확립하였고, 이후 보드리야르는 이 개념을 예술과 대중문화에 관한담론에 적용하여 1981년 시물라시옹(Simulation)이론을 제기하였다.

1)하이퍼 리얼리티

시물라시옹은 시물라르크가 자용하는 것을 말하는 동사로 실체가 아닌 하이퍼리얼리티로 전환되는 작업을 일컫는다. 이러한 시물라르크와 시물라시옹 개념은 포스트모던 형성 이래로 현대 철학의 중요한 가치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미디어 사회의 사회, 문화, 디자인, 영화, 미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현상을 분석하는 핵심개념이 되고 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는 생산중심의 산업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이동해 감에 따라 문자적 텍스트보다 TV, 케이블 TV, 위성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이미지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시대이다. 이미지는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람들은 시물라르크로서의 이미지를 복제하고 재생하는데 적극적이 되는데, 이미지의 복제가 원본과 모조품의 차이를 없앤다. 따라서 현대는 원본과 복제, 모델과 재생산의 동시 부정으로 진본과 사본 간격이 내파되고 진리와 허위의 경계가 무너지는 탈 중심적 시물라시옹 시대라 할 수 있다. 67)

2) 원본과 복제

하이퍼 리얼리즘은 원본과 복제물을 구별되지 않는 영역으로 빠지게 했다. 최근 흥행한 영화 가운데 “아바타”를 보면 커다란 파란 인형인 아바타는 한낱 원형을 대리하는 대체물에 불과하지만 아바타는 주인공의 인생 자체가 되며 원형적인 지구인은 사라져 버린다. 그렇다면 다른 별에서 살아가는 아바타의 인생은 가짜 인생인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게 된다.

다시 현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외모 중 얼굴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징표로 여긴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고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꾸며진 ‘아바타’로서 외모는 진짜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68)

문예비평가 롤랑 바르트는 [기호의 제국]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얼굴은 ‘인용’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의 헤어스타일, 화장하는 방식, 기분에 따라 즐겁거나 불쾌함을 나타내는 표정 등은 독창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모두 다른 얼굴로부터 ‘인용’된 거시다. 글을 쓰는 이가 다른 책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한 편의 논문을 완성하듯 우리는 남의 표정과 스타일을 복사한다. 이렇게 다른 것을 베껴 쓰는 방식으로 얼굴을 꾸미고 살아가는 형태는 오늘날 성형의 확산과 더불어 더욱 생기를 얻고 있다. 성형을 하는 이는 아바타를 구매하듯 상점에 놓인 얼굴을 구매한다. 또는 멋진 그림 하나를 자기 얼굴 위에 베껴 그린다.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에게 속하는 원본적인 것과 다른 것으로부터 인용하는 것을 결코 구별해내지 못할 것이다. ‘원형적인 것 또는 근본적인 것’과 ‘복제된 것 또는 첨가된 것’을 칼로 자르듯 나누기란 불가능하다. 원본과 가까운 서로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것이다. 69)

현대 사회나 팝아트 같은 예술 장르 분석에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시뮬라크르 개념은 현대 철학의 세 가지 주제가 기원의 부재, 역사의

67) 정세희,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133

68) <http://navercast.naver.com/philosophy/dailythink/2170>

69) <http://navercast.naver.com/philosophy/dailythink/2170>

부재, 합목적성의 부재이다. 기원과 역사와 합목적성은 아마도 플라톤의 신화를 통해 가장 잘 설명될 것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는 원본적인 모범적 진리인 이데아와 더불어 있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 오는 동안 망각의 강 레테를 건너면서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승에 있는 모든 불완전한 존재자들의 목적은 다시 저 모범적인 고향, 이데아계를 어떤 식으로든 되찾는 것이다. 모범적 기원의 상실은 역사라는 과정을 만들어내며 역사라는 과정은 궁극 목적으로서 저 잃어버린 기원을 되찾을 때 완성될 것이다.

우리 삶과 멀리 떨어진 형이상학적 주제로만 보이는 기원의 신화는 실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음과 같은 문답을 주고받으며 우리 삶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원이 누리는 영광의 배후엔 늘 기원보다 열등한 주변부가 영광의 그늘로 자리 잡는다. 순수한 원천에 대한 향수와 자만심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거기엔, 순수하지 못한 것이 섞여든 유색인종들, 혼혈아들, 불법이민자들이 있다. 시물라크르에 대한 긍정은 바로 순수한 원형적 모범의 기준을 벗어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환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시물라크르 개념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근대적 주체의 부정이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이래로 철학은 인간 의식을 존재자들의 존재함과 의미의 근거로서 확립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원본 없는 복제물로서의 시물라크르는 바로 의미의 원천으로서의 이 주체의 지위를 부정하는데, 이 점은 텍스트 이론에서 ‘저자의 죽음’이란 주제로 변주되면서 매우 재미있는 성찰들을 낳기도 했다.⁷⁰⁾

따라서 본 연구자는 스마트워크시대의 미적 범주를 현대 미학의 시물라크르로 적용하여 시대적 배경과 함께 해석하여 미학적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70) <http://navercast.naver.com/philosophy/dailythink/3669>

2. 스마트 워크시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주한 영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제 1회 글로벌 스마트워크 컨퍼런스가 지난 2010년 9월 15일 웨라톤 그랜드 워커일 호텔에서 개최됐다.

‘스마트 워크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스마트 워크 시대 의미와 과제 선진국의 유연근무제 적용 사례, 세계 우수 기업의 스마트 워크 사례 등을 발표 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올해 처음 시작된 ‘스마트워크 컨퍼런스’는 미래 지향 산업을 위한 어쩌면 필수적인 생활방식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 깊은 행사라 할 수 있다.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 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펼쳐진 이날 행사에서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스마트 워크는 저출산, 녹색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며 사회와 개인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석호익 KT부회장은 “스마트 워킹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고령화, 저출산,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⁷¹⁾

2015년 공무원 30% 원격 사무실 등서 근무할 예정이며, 스마트 폰과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장으로 트위터와 SNS(Social network service)등의 발달은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2010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도 스마트 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이것이 ‘반짝 이벤트’적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시켜주고 있다.

스마트 워크시대의 도래는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전문직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택 근무로 인하여 기존의 ‘오피스 걸’의 이미지에 서 벗어나 메이크업과 헤어 패션에 많은 변화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71) http://webzine.hrdtv.com/past/detail_search_01.asp

3. 스마트 워크 시대 여성의 미적가치

스마트 워크시대는 시뮬라크르적 미적가치관이 나타나고 있다. 모범도 원본도 없는 복제물 속의 삶이다.

시뮬라크르에서 보여 지는 복제성, 가상성(하이퍼 리얼리티), 다양성, 기호성 등의 특징들은 스마트 워크시대 여성의 미적가치변화에 나타난다. 장인적 생산을 통한 것들은 점차 사라지고 대량 생산을 통한 규격화되어 복제되고 복제된 사물들이 늘어난다. 여성의 미적가치 또한 모범 답안의 여성상을 어떤 여성이 복제하고, 다시 그 복제된 여성을 또 다른 여성이 복제함으로써 미적가치는 규격화되고 대량 생산 되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력 상승으로 인하여 여성 본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충족이 바로바로 되는 이 시점에서 복제성으로 인한 미의 보편성과 완전성은 하나의 트렌드화 되어 현대여성의 미의 기준으로 나타나고, 복제되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완전성을 가지게 된다. 여성들은 자신이 바라던 이데아, 즉 미적 기준치에 다다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20세기 중반 이후 교통 통신,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국가와 민족 문화 간 시·공간의 경계를 붕괴시키고 이에 따라 수많은 인종과 민족의 혼성을 통해 다중 정체성과 다문화주의 현상을 야기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의 영향으로 근대성에만 치우치지 않는 복수주의와 복수문화주의가 각 국가 내부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의 차원에서도 등장하게 되었다.⁷²⁾ 21세기 스마트워크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시뮬라크르의 미적특성은 미디어의 시간적 연속성을 통해 다양하고 유동적인 미적가치들을 표현해내어 세계는 하나가 되었으며, 서구가 강요한 백인 중심의 절대미에서 벗어나 미의 상대성은 역사 속에서 소외된 인종들의 미적가치를 새롭게 대두시켜 현대 뷰티분야에도 반영하고 있다.

뷰티 산업의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그 범위가 여성을 넘어선 남성의 영역까지 침범했다. 여성의 영역에서도 무조건적인 섹시함이 아니라 남성의 상징인 강한이미지 남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외모이미지로부터 상대를

72) 정세희, 전제논문, p.80

제압하는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사회 속 에서 남성들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남성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성공의 발판을 삼았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스마트 워크 시대의 얼굴디자인을 분류하여 스마트 워크시대의 여성의 얼굴디자인 스타일링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스마트워크시대의 FACE DESIGN의 특성

1. 보편성

인간의 미에 대한 관심, 타인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본능적이다. 현대는 남녀를 불문하고 외모에 신경을 쓰고 써야만 하는 시대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각 인종과 문화권마다 수천 년 동안 제 각각 형성돼 온 나름의 미의 기준, 현대는 그 기준에서 조차 서구적인 것이 보편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쨌든 사회현상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미의 기준에는 보편성이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므로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미인의 보편성에 접근하려고 매일 1시간씩을 메이크업에 투자하기도 한다. 평생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 비용과 관심을 합산하면 아주 큰돈일 것이다. 연간 미용 산업 분야에 도는 돈이 35조 원을 상회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어떤 이들은 1~2주간의 고통을 견디면서라도 성형수술을 해서 미적 보편성에 따라 가려고 한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⁷³⁾

외모에 대한 관심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그런데 한국은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다고 할 만큼 그 정도가 유별나다. 한국은 지금 세계적인 성형수술 선진국으로 통한다. 90년대 후반부터 성형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 성형수술시장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제 성형수술은 외모와 이미지가

73) 조용진, 전제서, pp.35-36

중요시되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선택의 문제가 돼버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환자는 물론, 의사들까지 한국 성형수술의 앞선 기술의 혜택을 받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일본 여성들을 겨냥해 부산에서는 가벼운 관광 코스와 성형 수술을 패키지로 하는 관광 상품이 등장하는가 하면, 5월에는 성형수술 박람회가 열려 가장 자연스럽게 수술이 된 여성을 가려 진선미를 뽑는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한결같이 쌍꺼풀진 큰 눈에 오뎅코, 도톰한 입술에 가름한 턱, 그리고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가지런한 치아까지 여지없이 확실적인 얼굴들이다. 또 방학이면 유명한 성형외과는 예약이 줄을 이어 성수기를 맞는다. ‘얼짱’, ‘몸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서 이를 부추긴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시장에서 과거에 불가능 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종류의 성형수술이 생겨나고 있다. 티 안나는 성형수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이제는 자연미인과 성형미인의 구별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그 경계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여성들은 아름다움에 대하여 재정의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괄적이지만 객관적이었던 동양적인 미는 서구미인들을 보게 됨으로써 상대적인 잣대를 대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미적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사진의 발명과 19세기말 고안된 사진인쇄의 출현은 복제 기술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시뮬라크르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성형으로 인한 미의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여성들은 누구나 미인이 될 수 있는 미인의 보편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일본 네티즌들의 글을 번역해 올리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한국 여자 연예인들은 얼굴이 비슷비슷해서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그도 그럴 것이 텔런트 김태희가 뜨면 그와 비슷한 얼굴의 여자 연예인이 ‘제2의 김태희’란 이름 아래 활동을 시작한다. 가수 이효리의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는 자칭 타칭 ‘제2의 이효리’라는 연예인이 여러 명 등장했다. 미의 규격화와 획일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미인의 보편화로 인하여 그 시대의 유행하는 성형술이 곧 미인의 척도가 되고 있다. 스마트 워크시대에 보여지고 있는 여성의 FACE IMAGE는 <그림 63>⁷⁴⁾은 보편적으로 턱이 없는 작은 얼굴, 봉긋한 이마와 크지 않은 오뎅코, 도톰한 입술, 둥근 턱, 살짝 올라와 있는 볼살, 제비 꼬리 모양의 팔자웃음주름, 헤어는 자연스럽지만 개성을 살릴 수 있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풍겨지는 IMAGE가 보여지고 있다.



<그림 63> 현대 여성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움의 보편화

2. 완전성

완전한 얼굴에 관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매스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이상적인 미(美)이미지를 제시하였다. 미디어는 일상생활에 대한 규범의 틀을 부과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이미지를 계획된 정보를 제공하여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아름다움에 대하여 객관화

74) 그림 출처: (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275432>
(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aid=0002212190>

시켰다. 객관성은 대중들의 욕망으로 연결되고 미디어의 조작대로 우리의 미는 정의 되어갔다.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아름다움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고 이상적인 몸으로 정의되고 있다.

성형의료기술의 발달로 여성들에게 있어 외모는 더 이상 선천적인 자신의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대상이 아닌 자신의 욕망의 의지에 따라 개조가 가능한 변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성형기술의 발달은 많은 여성들에게 사회의 시선에 따라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⁷⁵⁾

보드리야르는 육체가 소비대상으로 취급되는 자본주의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가 말한 자본주의적 특성은 몸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작으로 자산 가치로서의 몸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통해 어떠한 관리 대상보다도 가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이는 몸이 자본의 한 형태가 되어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자본주의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서 몸이란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말하며 자기 만족감의 결핍을 이야기 한다. 몸은 자신의 자본으로써 관리의 대상임을 강조하며 육체의 상품화 과정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⁷⁶⁾

소비문화는 이를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광고를 통해 매체의 메시지들을 통해 노동하는 몸은 이제 욕망하는 몸이 되기에 이른다. 여기서 미디어는 현대 사회에서 실재를 반영하기 보다는 구성해내는 힘을 가진 지배문화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의 그러한 힘은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그대로 전이되어 권력을 부과시킨다. ⁷⁷⁾

여성이면 누구나 아름다워지고자 한다. 스마트 워크시대로 도래하면서 여성의 신분상승, 경제력 향상은 높아지고 여성의 아름다움의 욕구는 소비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여성은 아름다움을 구매 할 수 있고 누구나 완전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여성들은 세기의 여인 엘리

75) 김주영, 「영화 속에 표출된 한국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의미:영화'미녀는 괴로워'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15

76) 김지연, 「여성의 다이어트 욕구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22

77) 김지연, 상계논문, p.23

자베스의<그림 64>⁷⁸⁾ 완벽한 대칭의 얼굴을 탐미하며 더욱더 완벽해지기 원한다.

아름다움의 완전성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하는 세 가지 기준들이 제시되어진다. 비례성과 통합성 명료성의 철학적 근거로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64> 현대여성의 완전성 사례

3. 탈젠더화

'젠더'(Gender)란 생물학적으로 각인된 의미의 성별의 차이를 가리키는 SEX와는 다르게 문화적으로 인식되어진 성을 의미한다. 즉 남서이나 여성의 성별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 해부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⁷⁹⁾

78) <http://photo.naver.com/view/2010042610010143894>

79) 이창렬, 「신체미술을 통한 표현적 특성에 관한 연구:1990년대 이후 신체미술을 중심으로」,경상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남성상과 여성상이 공존한다. 외국에서는 70~80년대에 보이조지나 프린스 등의 가수들이 양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등장했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자신의 여성상을 과감하게 표현 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과거 한국 사회의 성정체성을 야기 할 때 항상 전제되는 것이 바로 유교의 가부장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남성우월주의, 남아선호사상, 성 격리 문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강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확고한 영역의 구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남녀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온갖 다양한 매체들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음에 따라 이른바 ‘자기 PR시대’가 되었다. 그에 따라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표현의 욕구가 두드러지고,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물론 성적으로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현재에도 국외에서든, 국내에서든 남녀 역할의 구별이라든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분하지만 다양한 직업군의 생성과 일에 있어서의 남녀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남성이 디자이너, 푸드스타일리스트, 플로리스트 등의 직업을 가지면서 여성의 특성으로 일컬어지던 섬세함이나 예민한 감각이 필요해짐) 필연적으로 양성성의 적절한 활용이 요구되는 사회가 되었다.⁸⁰⁾ 또한 여성들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남성의 재력이나 권력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졌다. 경제능력은 순위 밖이고, 오로지 잘생긴 외모나 성격, 개성만이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여자들도 꽤 많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남성관이 변한다. ⁸¹⁾

20~30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이제 사회 모든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소비를 주도하는가 하면 주요 의사결정 등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육아를 주로 아내의 친정에서 맡는 경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26

80) http://blog.naver.com/yw_pyo?Redirect=Log&logNo=40014238782

81) 이은주, 「남성을 위한 Portable Beauty Kit에 관한 연구:메트로섹슈얼 남성을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9

우가 많아지면서 친정을 중심으로 한 '모계사회'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신 모계사회라는 시대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스마트 워크시대의 여성은 남성화되어가고 남성은 여성화 되어 여성도 남성도 아닌 이른바 젠더화의 이미지가<그림 65>⁸²⁾ 보여 질 것이다.



<그림 65> 현대 여성과 남성의 탈 젠더화 사례

4. 다문화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걸쳐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언어, 풍습, 종교, 정치, 경제 등 각종 문화 내용을 공유하고 집단 귀속 감정에 따라 결합된 인간 집단의 최대 단위로서의 문화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문화적 공유성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집단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 문화란 언어, 종교,

82) <http://www.tankus.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38&aid=0000311285>

세계관, 사회조직, 경제생활 및 그 밖의 생활양식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뜻을 지닌다.

민족은 인간에 의한 인간 자신의 분류 행위 중 하나이며 인종 개념과 서로 통한다. 인종은 피부색, 모발, 눈의 빛깔, 골격구조, 용모, 혈액형 등 여러 가지 신체적 특징에 의하여 인류를 나눈 단위이며, 민족은 역사적 운명과 문화적 전통 특히 언어를 공통으로 하는 사회집단을 기초로 인간의 후천적, 비유전적 특징에 의하여 분류한 단위이다.

서구 중심의 획일주의 사회에서는 서구 백인 문화가 가치의 기준이 되어 사회, 인종적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가 똑같이 적용되어 인종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세기 중반 이후 교통, 통신,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국가와 민족 문화 간 시·공간의 경계의 붕괴로 인하여 수많은 인종과 민족의 혼성을 통해 다중정체성과 다문화주의 현상을 야기했다. 이에 서구가 강요해온 백인 중심의 절대미에 대한 추종에서 벗어나 미의 상대성이 대두되었고 유색인, 그리고 소수민족의 정체성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서구가 강요한 백인 중심의 절대미에 대한 저항은 1950년대 인종차별에 대한 반항 운동으로 아프로 헤어스타일(Afro hairstyle)을 등장시켰는데 이는 인종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띠는 헤어의 재질이나 색깔, 스타일 등의 특성이 인종과 관련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흑인의 아프로 헤어스타일은 백인 우월주의에 저항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 민권운동과 흑인 운동이 주창한 "black is beautiful"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흑인의 긍지를 표시하는 가장 뚜렷한 이미지로 1960년대 후반의 반문화적 표현 방식의 하나이며, 단순히 패션요소라기보다 흑인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스타일 정치이라 할 수 있다.

드래드록스(dreadlocks) 역시 백인과 기독교 우위의 사회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대표적 헤어스타일이다. 이는 라스타파리언(Rastafarians)들의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라스타파리언들은 전통적인 기독교를 거부하고 흑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백인 우위의 사회에 대해 종교적, 이데올로

기적으로 반대해왔다. 이들은 드래드럭스를 자신들과 다른 집단을 차별화시켜 주는 유의미한 기표이자 정치적인 신념의 상징물로 활용하고 있다.

아프로 헤어스타일과 드래드럭스는 두발을 피부색에 못지않은 민족적 정체성 표출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신체적 외모 차이로 인해 받은 차별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인종에 따른 억압과 편견에 저항하는 외모 표현 방식이며, 인간이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을 수 없는 동등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한다.⁸³⁾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세계화와 다문화 주의를 지향한다. 서양 지배 문화하의 세계화에 따른 민족적 정체성은 문화적 동질화, 민족 정체성의 침식의 결과, 정통성 공통체의 소멸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세계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민족적, 지역적, 특수주의적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고 새로운 정체성이 등장 하고 있다. 이것이 실천적 대안이 다문화주의로 1980년대 말엽부터 미국 학계나 문학계에 일어나기 시작한 운동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를 보다 균형 있고 폭넓게 보려는 태도를 가지며 지배 민족 문화 뿐 아니라 소수 민족의 문화에도 관심을 갖자는 입장이다. 다문화 주의가 상징하는 문화는 특정 집단의 고정된 속성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집단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겨나 산물이고 이러한 과정은 정치성을 띠어 소수 인종집단이 새롭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한 정치적 인정을 요구하게 된다고 한다. ⁸⁴⁾

또한 현대의 정보사회에서 전 세계의 네트워크화로 인한 이러한 다문화 현상은 다양한 지역문화의 자극과 접촉으로 문화현상의 모호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성에 있어서 제더리스(genderless), 연령에 있어서 에이저리스(ageless), 민족에 있어서 레이스리스(raceless)라는 모호성으로 나타나고 있다,⁸⁵⁾이러한 레이스리스의 경향이 패션에도 빠르게 접목되었고 여러 나라의 이국적인 특성의 혼재에 의해 시간성과 장소성의 이질감은 이항대립의 구조로 특성화되어 표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런던을 비롯한

83) 정세희, 전제논문, p.80

84) Geert Hofstede, 차재호·나은영(易),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1996, p.37

85) Vogue(korea), 1998년 12월호

유럽에서 급속히 시작된 레이스리스는 나체에 뉴질랜드 원주민의 문신을 새기고 중국 청조의 변발을 연상시키는 머리를 하였으며,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인 블루진을 입고 있다. 또 그 문신이 피부가 아닌 셔츠 위에 프린트되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지역적 요소들은 각각의 독자성을 잃지 않고 서로 관련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 패션에서도 이러한 다문화 현상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요소들을 한 데 부어 놓은 국적 불명의 이미지 표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로 흑인 문화, 동양문화⁸⁶⁾등 다양한 지역적 모티브를 가진 이국적 이미지의 신체장식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다국적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그림 66>⁸⁷⁾ 느끼고 있다.



<그림 66> 현대여성의 다문화 사례

5. 전문성

최근 한 홈쇼핑이 명품전문 간판 프로그램을 석가탄신일인 휴일에 론칭을 결정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명품 프로그램은 남편이 출근한

86) 이민선, 「다문화 사회에 따른 미술교육과정의 방향」,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4-97

87) <http://heren.joins.com/article/article.asp?aid=2783&code=0702100>

이후 시간대인 평일 오전 10시 이후에 편성하는 것이 관례지만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명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휴일에 론칭을 결정한 것이다. 또 백화점, 마트 등의 주요 소비층도 여성이 장악하면서 여성 전용주차장이 보편화된 것은 물론 수유실을 비롯해 미용실, 네일케어숍, 피부관리실 등 여성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여성 흡연자들을 위해 담배 이미지를 배제한 전용 치약까지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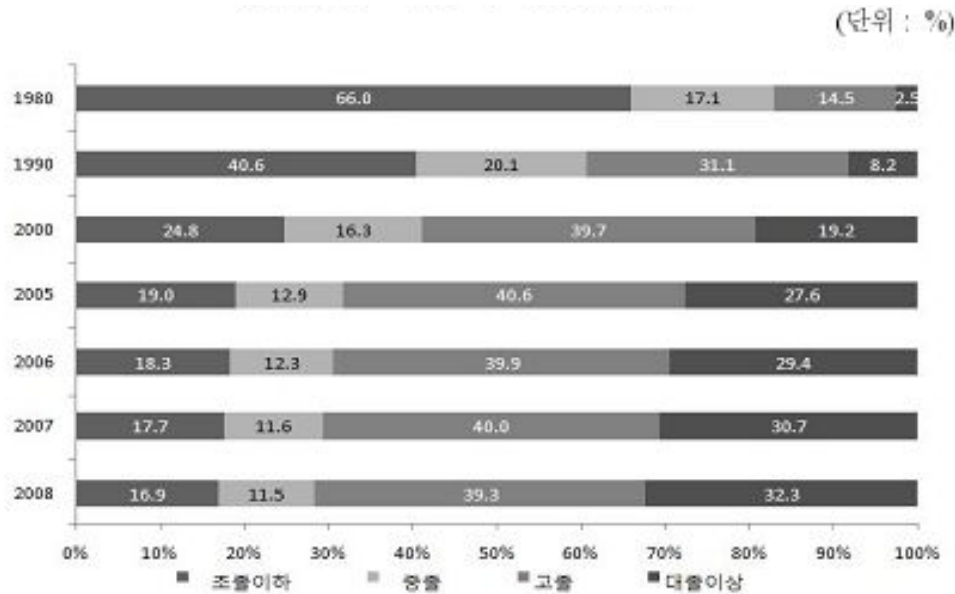
20~30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여성은 이제 사회 모든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소비를 주도하는가 하면 주요 의사결정 등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기존 '가부장제 사회'에서 '신(新) 모계 사회'로 변혁의 한 가운데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육아를 주로 아내의 친정에서 맡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친정을 중심으로 한 '모계사회'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고소득 전문직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갈수록 늘고 가정의 경제권도 장악하면서 발언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시 합격자와 의사 등 여성 전문직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교육정도별 여성 취업자 분포<그림 67>를 살펴보면 1980년에 2.5%, 1990년 8.2%, 2000년 19.2%에 불과하던 대졸 이상 여성취업자의 비중이 2008년 32.3%로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직업별 취업자의 비중 변화<그림 68>를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 중 전문·기술·행정관리자 등 고부가가치 창출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남성과 여성의 전문·기술·행정관리자의 비중은 각각 21.9%, 14.0%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약 8%p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08년 현재 전문·기술·행정관리자의 비중은 남성이 24%, 여성이 20.2%로 여전히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나, 그 격차는 1.9%에서 2008년 3.8%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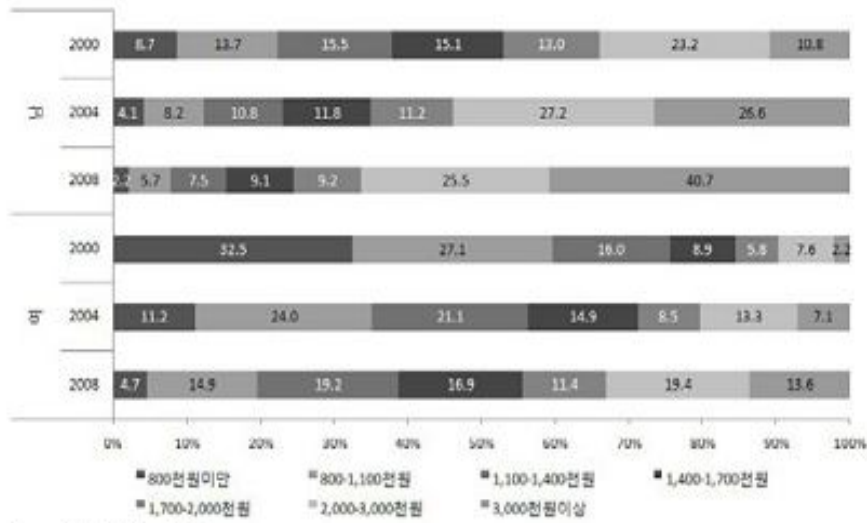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그림 67> 교육정도별 여성 취업자 분포

임금계층별 근로자의 비중<그림 69>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소득 근로자의 계층 증가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임금계층인 월 임금 80만원 미만 여성 근로자의 비중은 2000년 32.5%에 달하였으나 2008년 현재 4.7%로 크게 감소했고, 남성의 경우에는 2000년 8.7%에서 2008년 2.2%로 감소했다. 가장 높은 임금 계층인 월 임금 300만원이상 여성 근로자는 2000년 2.2%에서 2008년 13.6%로 6배 이상 증가 했다. 남성 역시 2000년 10.8%에서 2008년 40.7%로 증가하였으나, 상대적 증가폭은 여성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월 200~300만원 임금계층 비중 역시 2000년 7.6%에서 2008년 19.4%로 크게 증가하였다.(여성경제활동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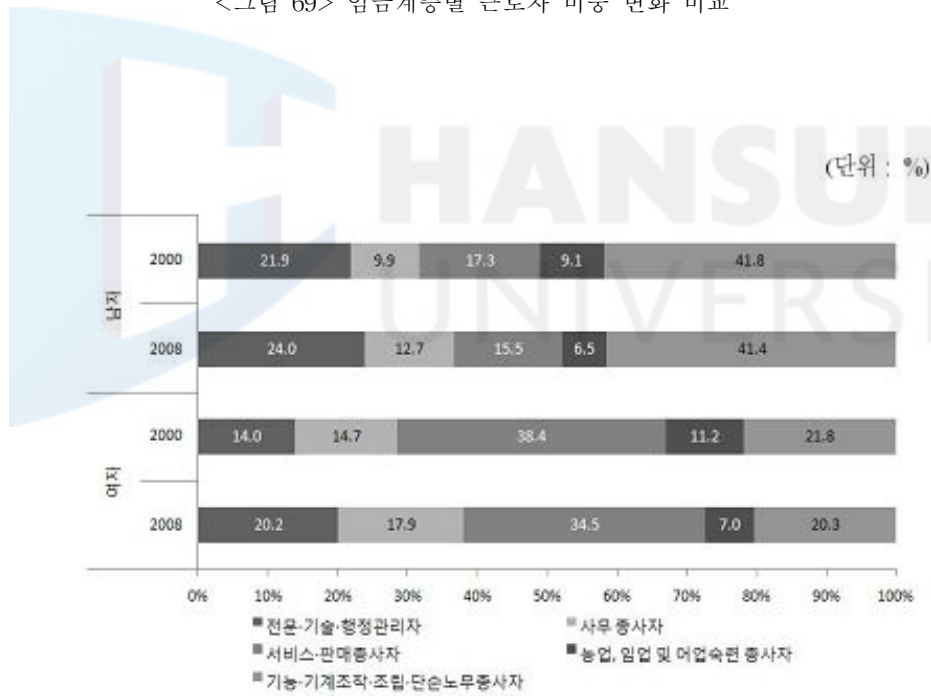
(단위 : %)



주 : 임금총액 기준

자료 : 노동부(각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노동부(2009), 「200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림 69> 임금계층별 근로자 비중 변화 비교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 5차 개정(2000년)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68> 직업별 취업자 분포 변화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 활동 모습의 특징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와 출산율의 하락 M자형 고용구조,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 복귀 증가, 고학력·고소득·전문직 여성 근로자의 증가로 요약되어지고 있다.

[표 20] 스마트 워크 시대의 시대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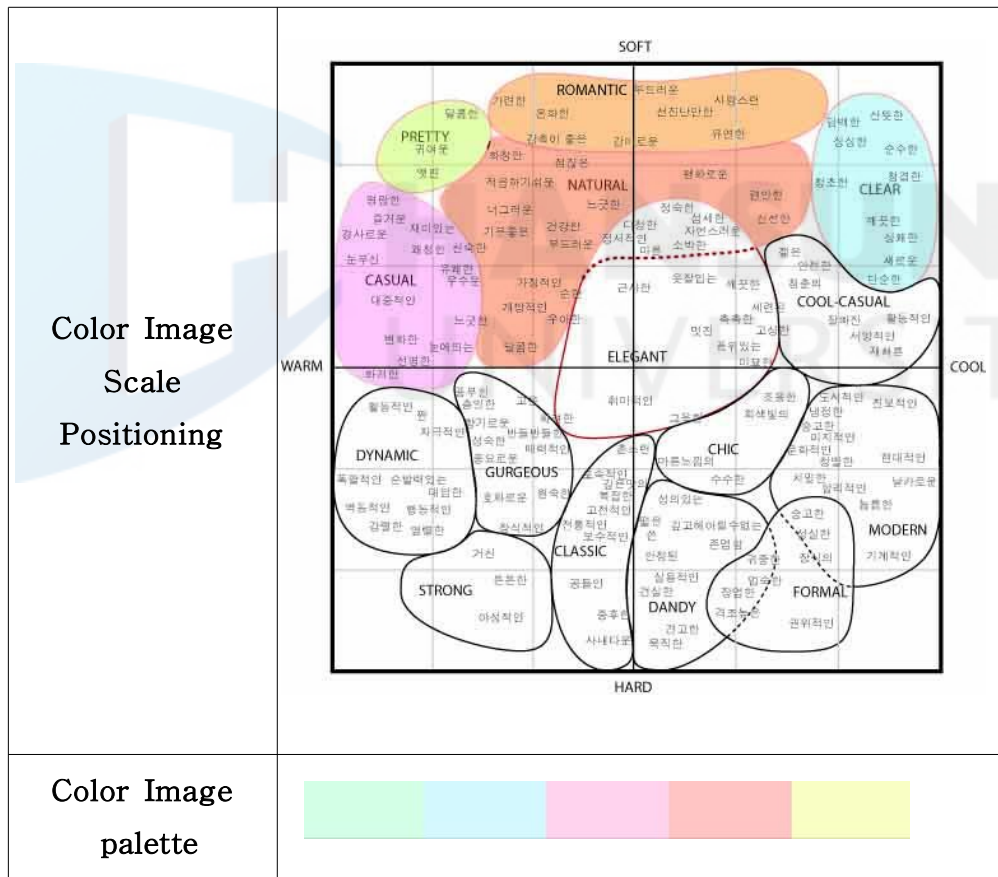
스마트 워크시대의 특성	시대적 배경
보편성	성형기술의 발달은 누구나 아름다워 질 수 있는 미의 보편화시대
완전성	미의 보편화로 인해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게 됨
탈젠더화	가치관의 융화로 남성과 여성의 성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남성은 여성스러워지고 여성은 남성스러워 지는 탈젠더화 현상이 나타남
다문화	20세기 중반 이후 교통 통신,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국가와 민족 문화 간 시·공간의 경계는 붕괴되고 다문화주의 현상 나타남
전문성	여성의 사회진출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대에 이르러서는 고소득 전문직의 여성 눈에 띄게 늘었다.

제 3절 Smart Work 시대의 Face Design Styling

1. 보편성의 Face Image direction:

보편성의 얼굴 이미지는 대중적이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친근한 여성의 이미지이다. [표 21]은 컬러 언어 이미지 스케일 포지셔닝을 통해 디자인 컨셉을 제안하였으며, [표 22]은 보편성의 얼굴이미지를 이미지맵으로 설명하였으며, [표 23]에서는 순수미와 우아미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스마트 워크시대의 도시 여성을 제안하였다.

[표 21] 보편성 Face Design Concept



[표 22] 보편성 Face Image direction :본인 작품

표현 방법	이미지 특성	표현 형식
순수미와 우미적 표현	부드러운 색상, Baby pink. beige 여성스러움 강조, 우연히 생긴듯한 곡선, 자연스러운, 꿈결같은	흘러내리는 웨이브 스타일, 쳐진 듯 한 큰 눈, 로코코적인 장식요소. pale tone의 색상
		

(출처:<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475546>,
<http://www.gettyimageskorea.com>)

[표 23] 보편성의 Face Design direction :본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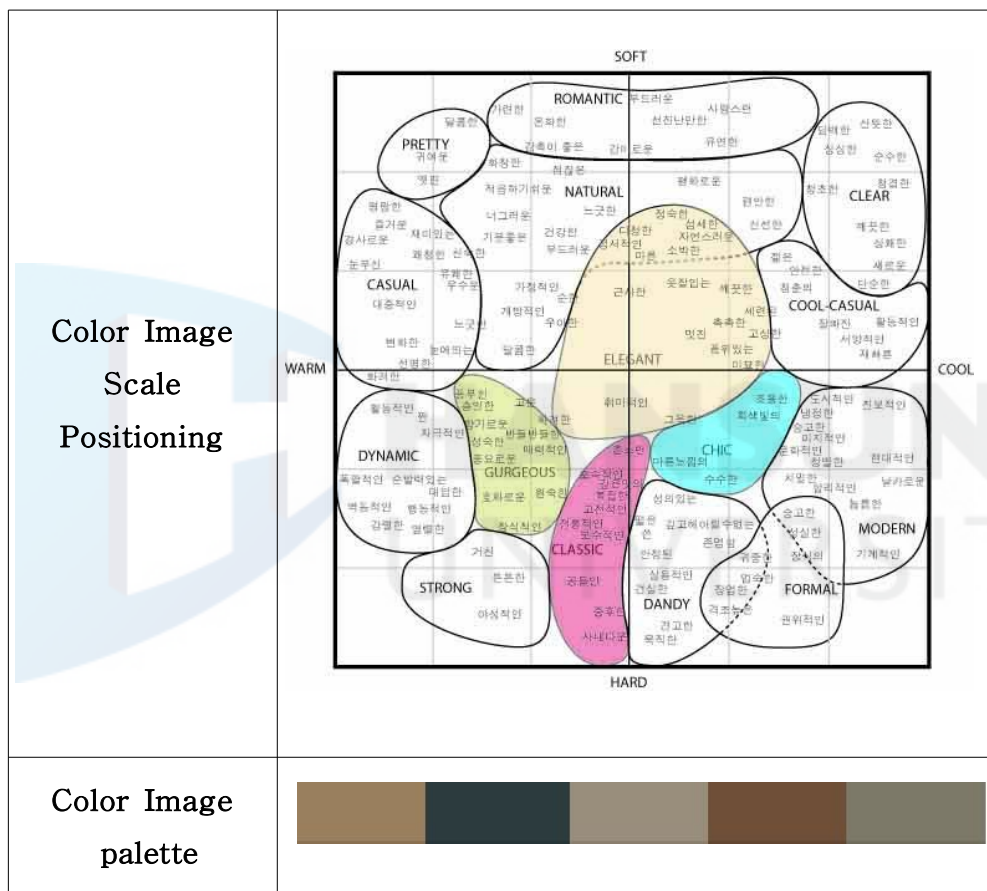
보편성의 Face Design : 스마트워크시대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미적 가치로서 부드럽고 산뜻한 촉감의 가루들이 가볍게 날리는 느낌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특징이다. 순간적인 부드러운 곡선의 흐릿함, 가벼운 그림자와 풍부한 볼륨감이 우아미가 느껴지도록 제안된다.



2. 완전성의 Face Image direction

완전성의 얼굴디자인 컨셉은 ‘성형미인’으로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표 24]에서 보면 쉬크, 엘레강스 클래식, 고저스한 컬러이미지를 제안하였으며, [표 25]에서 완전성의 이미지를 통해 [표 26]에서 순수미와 숭고미의 조화로 스마트 워크 시대의 여성을 제안하였다.

[표 24] 완전성 Face Design Concept



[표 25] 완전성 Face Image direction:본인 작품

표현 방법	이미지 특성	표현 형식
순수미와 숭고미적 표현방법	모던함과 클래식함, 완벽한 균형과 비례, 섬세한 디테일 가미.	pale 톤과 deep톤의 배색, 블루빛 하얀 피부와 블랙의 헤어컬러는 인형 같은 느낌을 준다.
		

(출처:<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475546>,
<http://www.gettyimageskorea.com>)

완전성의 Face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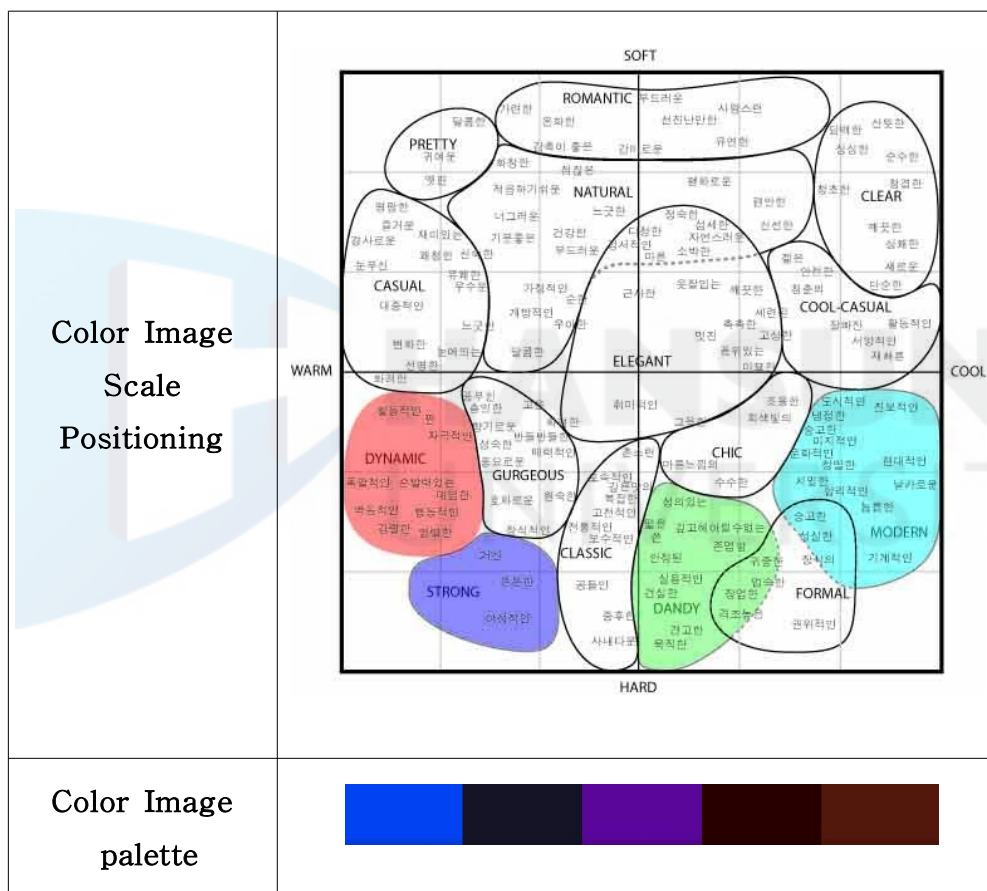
모던하고 클래식이 공존하는 독특하고 과학적인 미학적 표현양상, soft 컬러와 deep 컬러의 절충으로 인한 고전적이면서 세련된 도시적 여성 이미지를 제안한다.



3. 탈젠더화의 Face Image direction:

탈젠더화의 얼굴이미지는 [표 27]에서 나타낸 것처럼 남성적이고 강한 이미지의 여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이나믹하고 강한 색상을 주조색으로 활용하였으며, [표 28]이미지 맵에서 나타나는 탈젠더화 이미지를 [표 29]에서 남성의 상징인 짧은머리와 강렬한 아이메이크업을 통해 비장미적 여성 이미지로 표현하여 스마트 워크시대의 커리우먼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표 27] 탈젠더화 Face Design Concept



[표 28] 탈 젠더화 Face Image direction :본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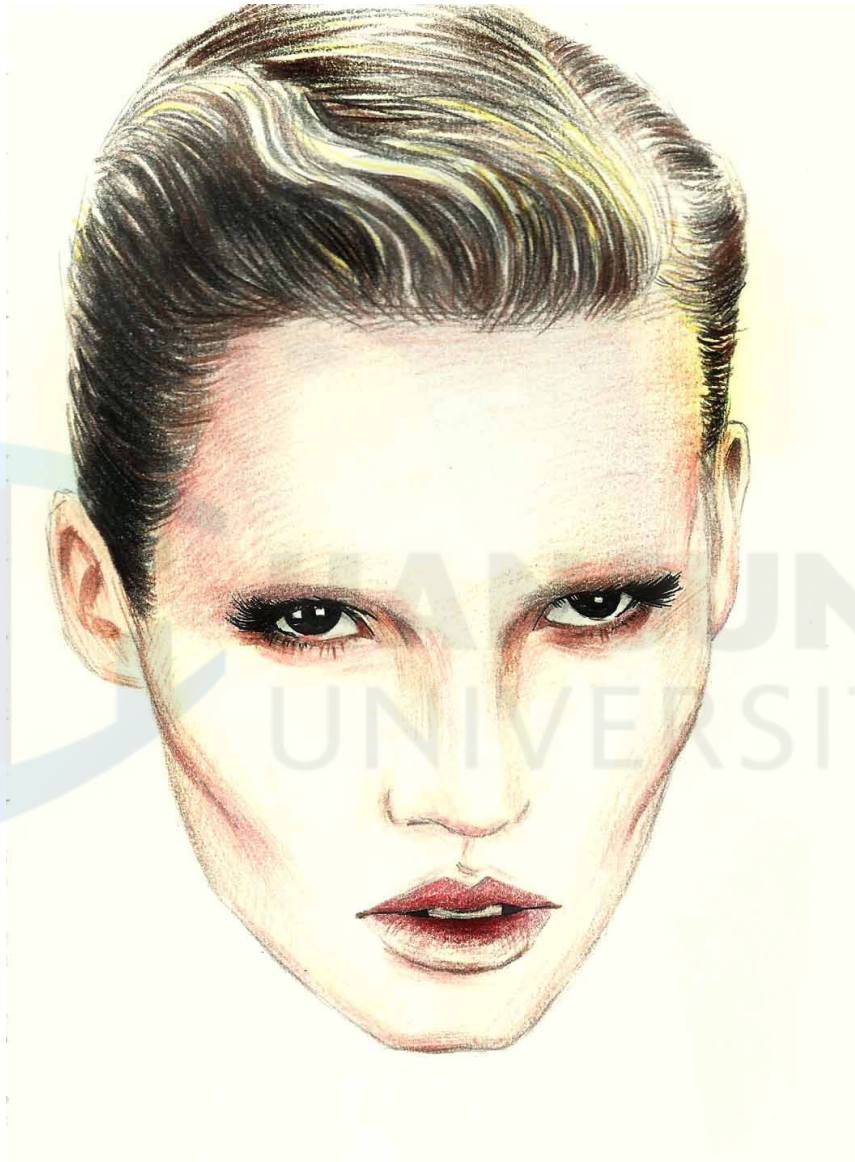
표현 방법	이미지 특성	표현 형식
비장미	남성적인 여성상 표현, dark navy, red mahogandy 같은 deep한 컬러. 날카로운 직선적인, 굵고 진한, 반항적인	또렷하고 깊이감 있는 눈매, 얼굴의 윤곽 강조, 거친 느낌의 헤어스타일, 반대색상의 혼합된 이질감 표현
		

(출처:<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475546>,
<http://www.gettyimageskorea.com>)

[표 29] 탈 젠더화 Face design direction:본인 작품

탈 젠더화의 Face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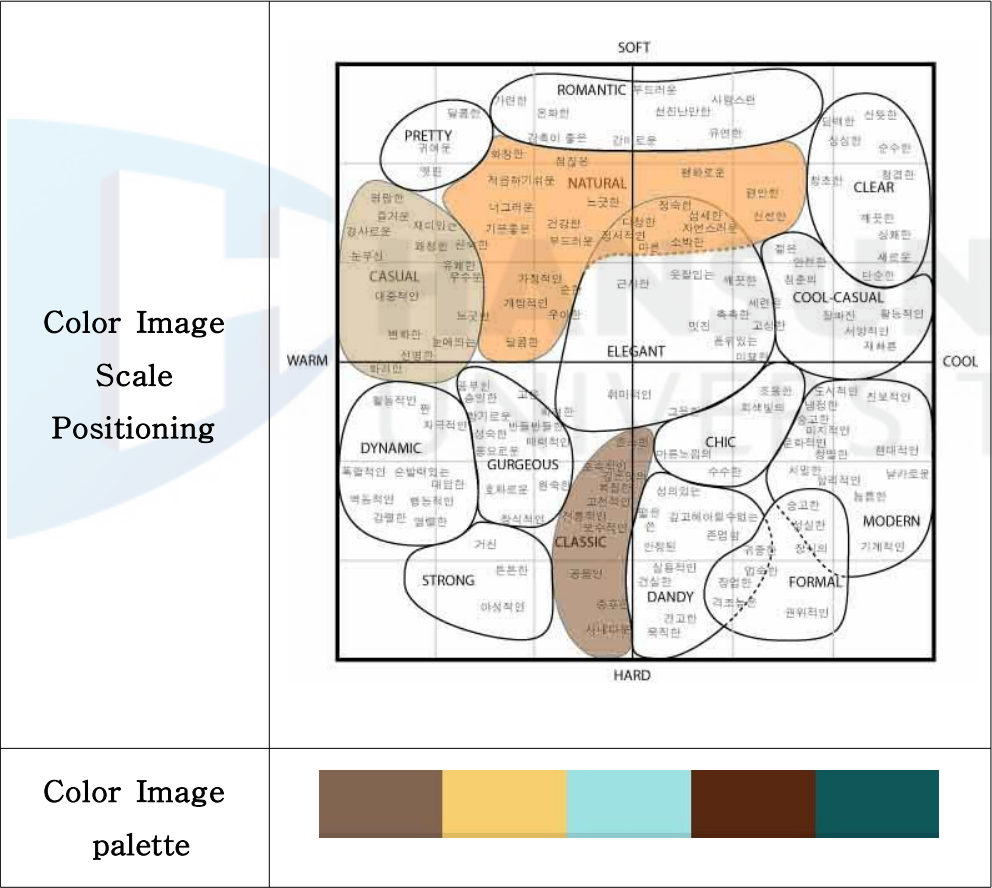
소프트 하면서도 강한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윤곽과 라인의 강조를 통해 남성적 카리스마를 제안한다.



4. 다문화의 Face Image direction:

다문화는 [표 30]에서 나타낸 것처럼 고전적인 색상과 선명한 색상의 조화로 다문화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3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인종적 특징의 믹스표현을 통하여 [표 32]의 흑인여성의 인종적 특징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아름다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표 30] 다문화 Face Design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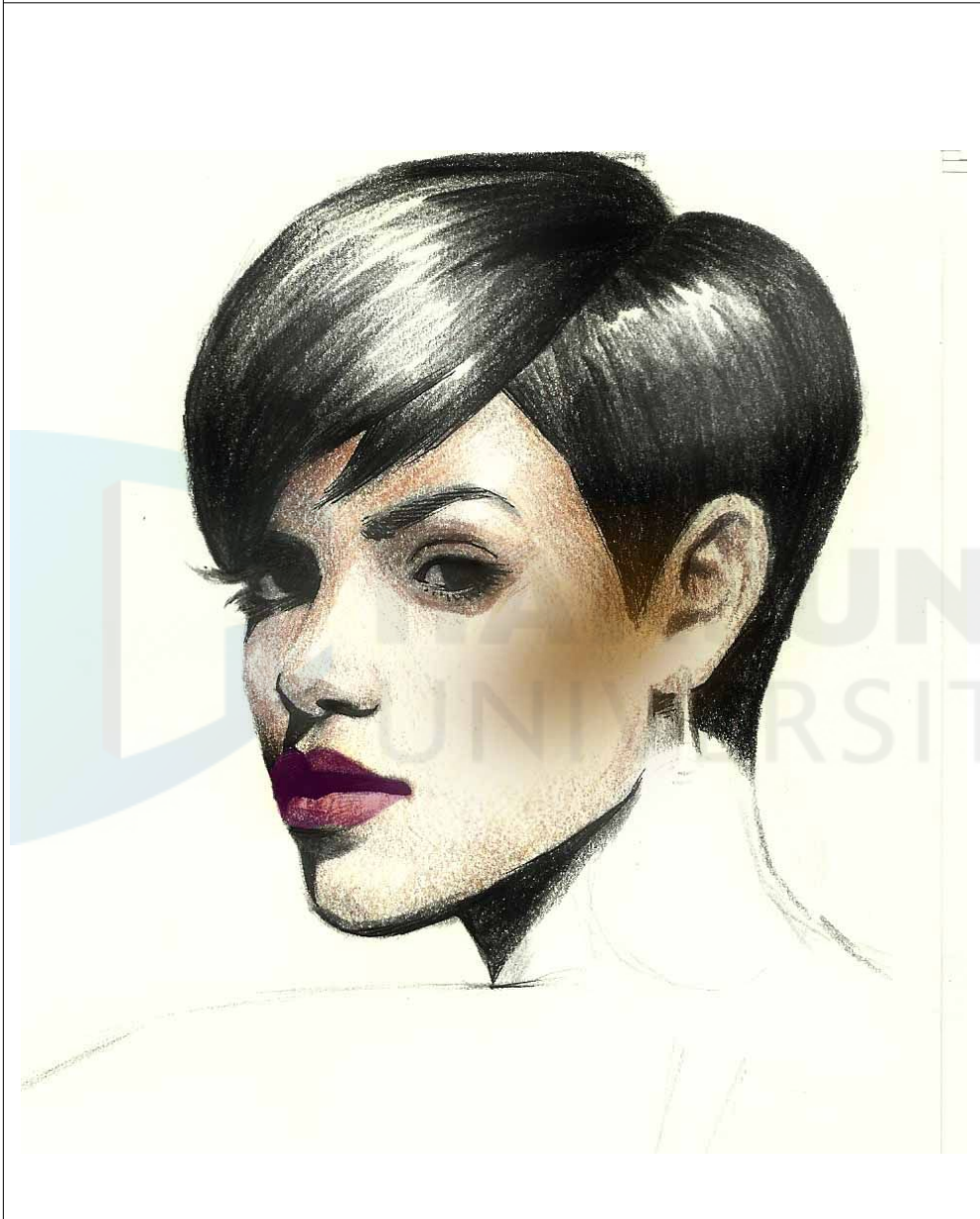
[표 31] 다문화 Face Image direction :본인 작품

표현 방법	이미지 특성	표현 형식
글게미와 우미	인종별 특징을 제거하거나 강조함으로써 얻어지는 글게미와 우아미의 조화는 여성미를 더욱 강조해준다.	흑인의 반항적인 머리를 제거 세련된 헤어컷, 아이메이크업을 강조하여 도회적인 여성미를 강조한다.
		
		

(출처:<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475546>,
<http://www.gettyimageskorea.com>)

[표 32] 다문화 Face design direction :본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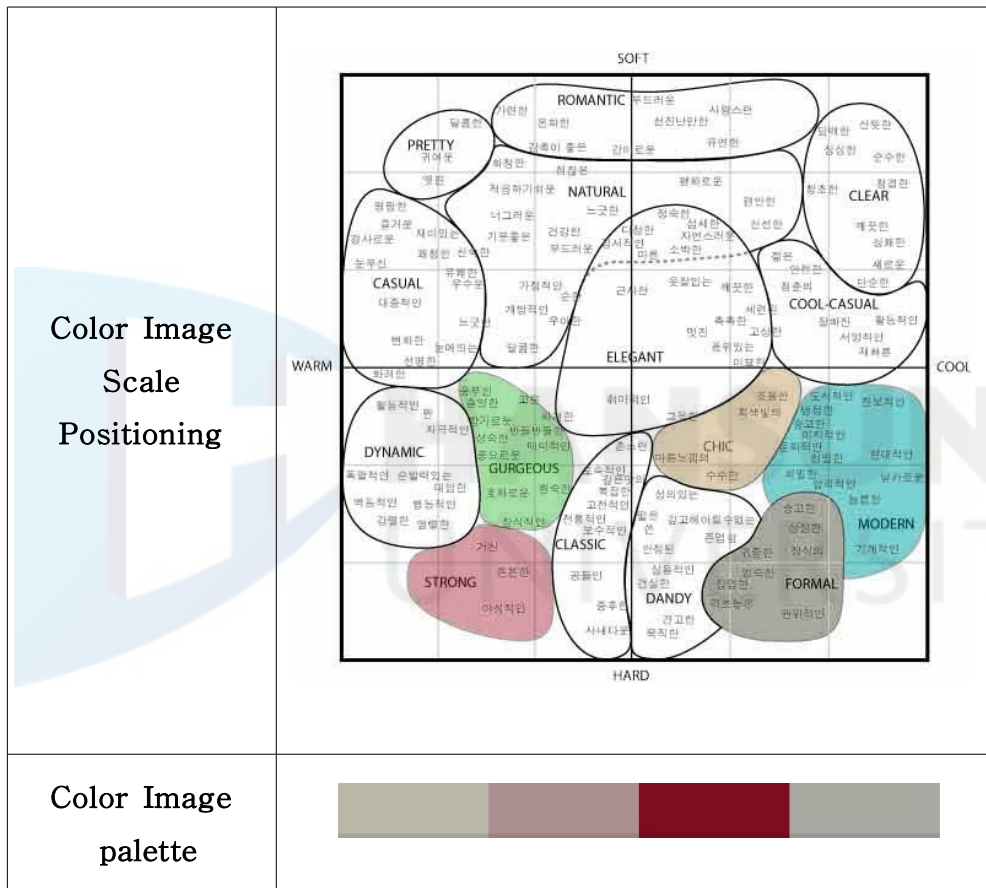
다문화의 Face Design: 매끄럽고 완벽한 헤어컷트는 인종의 차이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을린 듯한 피부를 매끄럽게 표현해주면서 고풍스런 스모키한 메이크업을 통하여 다문화적 이미지를 제안한다.



5. 전문성의 Face Image direction:

고소득 전문직종의 여성을 제안하기 위해 [표 3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채도, 저명도 색상을 활용하여 스마트 워크시대 여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표 34]의 여성이미지는 헤어의 볼륨감과 리드미컬한 컬이 느껴지도록 표현하여 [표 35]에서는 귀족적이고 성숙한 스마트 워크시대의 여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표 33] 전문성 Face Design Concept



[표 34] 전문성 Face Image direction :본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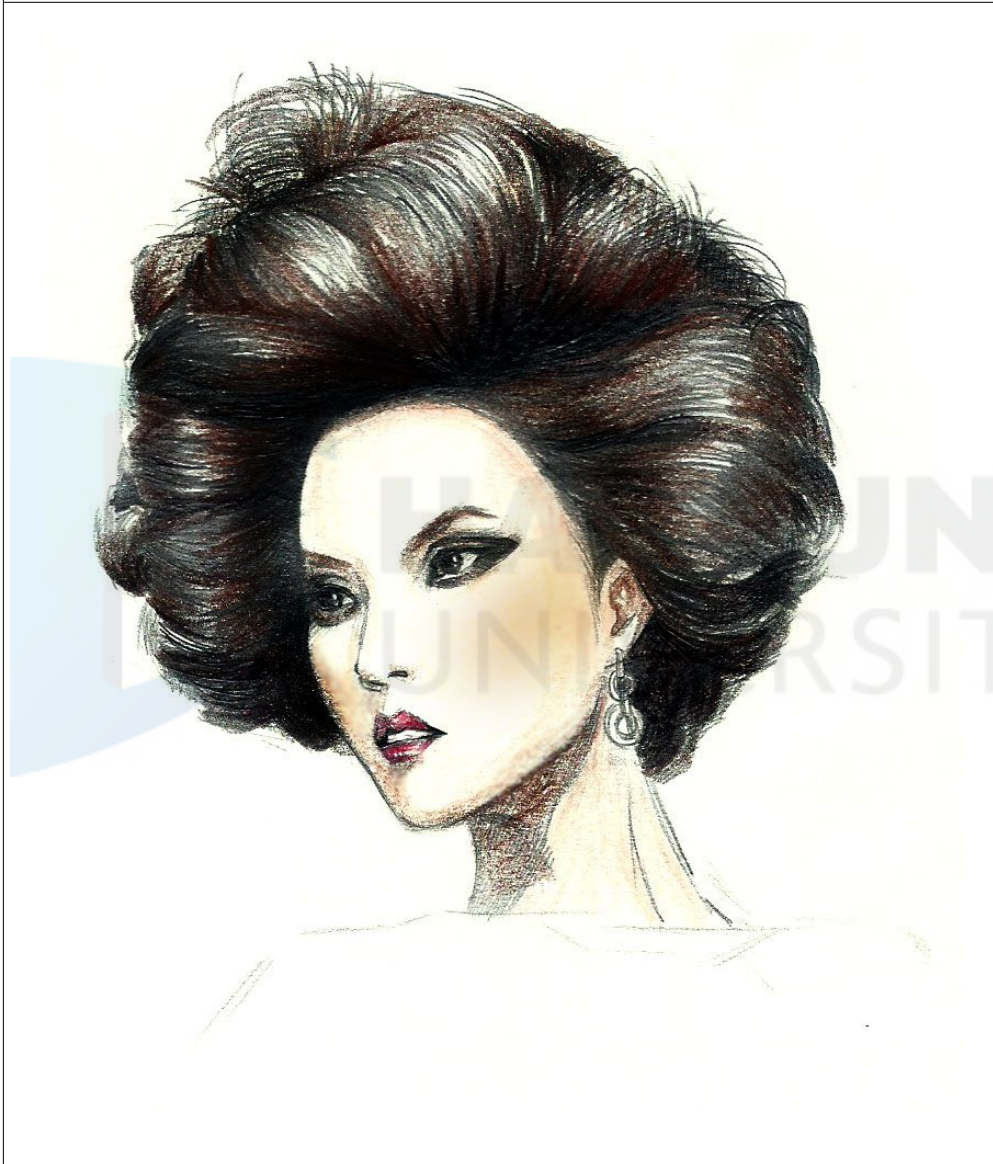
표현 방법	이미지 특성	표현 형식
숭고미와 우미의 표현	엔틱하고 관능적 여성, 고혹적이고 력서리함, 우아하면서 파워가 있는 스타일	볼륨감과 웨이브의 강조, chocolate brown색상의 헤어컬러, purple계열 색상으로 아이메이크업표현. 전문직 여성의 카리스마 표현.

The collage features a woman with voluminous brown hair and dramatic eye makeup, a classical statue's head, a close-up of a tree trunk with moss, a person in a white shirt working on a laptop, and a row of color swatches at the bottom. The text 'SPECIALITY PROFESSIONALIS' is overlaid on the collage.

(출처:<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475546>,
<http://www.gettyimageskorea.com>)

[표 35] 전문성 Face design direction :본인 작품

전문성의 Face Design 앤티크 하면서도 관능적인 느낌으로 dark grayish, purple, grayish blue, antique brown, chocolate brown으로 고풍적이고 럭셔리한 전문직 도시여성을 제안해 보았다.



제 6 장 결 론

여성의 미적가치의 변화는 시대에 따라 민족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보편적 아름다움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편적 아름다움이 당대의 미적가치의 기준이라는 점과 그 시대의 지식계급과 부와 권력을 가진 특권층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현대 시대까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여성의 미적가치의 흐름에 대한 분석으로 헤어와 메이크업에 적용 시켜봄으로써 과거 여성의 얼굴이미지 뿐 만 아니라 현대 여성의 얼굴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자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시대를 스마트 워크시대라 정의하여 여성의 미적가치를 분석하여 얼굴디자인을 분석해 보았다.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종래의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개념을 말한다.

이론적 분석을 하기 위하여 미학적 범주는 여성의 미적가치의 흐름의 체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적용하였으며, 텔 타이와 데스와의 원환적 방법으로 순수미, 우미, 숭고미, 비장미, 고풍미, 추미로 분류하여 해석하였다.

첫 번째, 스마트 워크시대에서 보여 지는 모계시대여성의 얼굴디자인은 고풍미와 추(醜)미적 가치가 내재되어 나타났다. 대표적 모계시대인 구석기시대의 예술품인 동굴벽화, 간편한 돌조각이나 상아 조각 같은 예술품들 중, 특히 여성 조각상들이 세계각지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중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이 대표적 고풍미와 추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거대한 가슴과, 짧고 두꺼운 허벅지, 풍만한 배 모양을 하고 얼굴모양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시대의 미적가치는 모성애, 즉 ‘다산과 풍족’의 상징이 아름다움으로 여겨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었다. 현대시대에서는 빌렌도르프 비너스 같은 비만한 여성은 미의 기준에 바람직하지 않는 여성상이었지만 스마트 워크시대에서는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풍만함을 과시하여 외적인 미보다 내적인 미에 대한 칭송으로써 또 다른 미적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부계시대의 얼굴디자인은 우아미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부장적, 남성 우월 주의적 가치관이 정립되어있던 시대에는 남성이 바라는 여성상이 곧 미적가치의 기준이었다. 가장 여성성이 돋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로코코양식에서 보여 지는 로맨틱함은 스마트워크시대의 여성들에게 보편적미로 내재되어 표현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종교시대의 얼굴디자인은 순수미적 가치가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세계에서의 순결과 정숙이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고, 신의 섭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육체미가 최고의 미적가치였다. 스마트워크시대에서는 치장은 여성의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종교시대에 나타나는 순결하고 정숙한 이미지는 지적이고 깨끗한 얼굴디자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여왕시대의 얼굴디자인은 숭고미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왕시대의 대표적 미적가치로서, 백성들은 그녀의 외모와 정신을 모방하고 싶어 했고,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미의 기준 또한 백성들에게 나타났다. 스마트 워크시대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미적가치는 완전성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성형술의 발달은 여왕시대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아름다움의 추구를 충족시켜주었으며, 완전한 미를 추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 번째, 여성성공시대 얼굴디자인은 비장미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개혁과 전쟁은 여성의 지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여성의 미적기준 또한 바뀌게 되어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은 남성을 위한 아름다움이 아닌 여성 자신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남성적 스타일은 스마트워크시대에서는 탈젠더화로 남성스러운 여성미를 표현하여 보이시(boyish)하고 시크(chic)한 강한 여성의 얼굴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론적 배경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미적가치 특성을 바탕으로 스마트 워크시대 얼굴디자인을 제안해 보았다.

스마트 워크시대에서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여성의 결혼으로 인한 경제력 상실은 감소 할 것이

며 경제력 향상으로 인한 여성소비는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아름다움의 욕구는 여성의 본능으로 시플라크르에서 나타나는 복제성, 가상성(하이퍼 리얼리티), 다양성, 기호성 등의 특징들이 현대 여성의 미적가치 특성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인적 생산을 통한 것들은 점차 사라지고 대량 생산을 통한 규격화되어 복제되고 복제된 사물들이 늘어난다. 여성의 미적가치 또한 모범 답안의 여성상을 어떤 여성이 복제하고, 다시 그 복제된 여성을 또 다른 여성이 복제함으로써 미적가치는 규격화되고 대량 생산 되는 것이다. 현대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력 상승으로 인하여 여성 본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충족이 바로바로 되는 이 시점에서 복제성으로 인한 미의 보편성과 완전성은 하나의 트렌드화 되어 현대여성의 미의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성형기술의 발달은 누구나 아름다워 질 수 있는 미의 보편화를 만들었다. 보편성의 이미지는 시대적 우미적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미의 보편화로 인해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성형술은 어떤 사람에게는 악영향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추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더욱더 완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완전성의 이미지는 숭고미의 의미를 포함하며, 절대적 아름다움 즉 보편화가 되려고 하는 여성들의 롤 모델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20세기 중반 이후 교통 통신,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국가와 민족 문화 간 시·공간의 경계는 붕괴되고 다문화주의 현상을 야기하였다. 다문화는 아름다움의 가치관 또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로테스크하게 표현되어 극적이고 신비한 느낌을 준다. 넷째, 가치관의 융화로 남성과 여성의 성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남성은 여성스러워지고 여성은 남성스러워 지는 이른바 탈젠더화 시대가 되었다. 비장미적 표현양상이 나타나며 남성과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는 현대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섯 번째,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속도는 빨라졌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고소득 전문직의 여성 또한 눈에 띄게 늘었다. 전문성의 얼굴디자인은 비장미와 숭고미의 표현 양상으로 제안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과거에는 여성의 미적가치관이 획일화 되어 나타났었지

만, 스마트 워크시대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으로 다양한 미적가치관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시대에 따른 여성의 얼굴디자인을 유형분류를 통해 현대여성으로 얼굴디자인을 적용해보고 스마트 워크시대의 여성의 미적가치분석을 통하여 미래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해 가는데 유용한 지적자본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많은 시간이 드는 일러스트레이션 작업과 이미지 맵 핑의 작업시간의 한계가 있었으며, 보다 많은 회화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여 정확한 얼굴디자인 분석을 간략하게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현대여성에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의 가치관의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인다.



【참고문헌】

1.국내문헌

학위논문

- 김경하, 「르네상스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특징」,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주영, 「영화 속에 표출된 한국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의미:영화'미녀는 괴로워'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지연, 「여성의 다이어트 욕구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진숙, 「한국여성 전통 머리 양식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과 서양 여성머리 양식의 비교를 통하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박혜원, 「현대미술의 숭고미와 동양정신의 추구」,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안성찬, 「숭고의 미학-그 기원과 개념사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엄현신, 「얼굴에 대한 미의식과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윤내한, 「산업디자인의 미적가치와 범주에 관한 연구」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민선, 「다문화 사회에 따른 미술교육과정의 방향」,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숙연,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에 나타난 Make-Up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은주, 「남성을 위한 Portable Beauty Kit에 관한 연구:메트로섹슈얼 남성을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창렬, 「신체미술을 통한 표현적 특성에 관한 연구:1990년대 이후 신체미술을 중심으로」, 경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정세희,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학술지

장상숙·김훈, 「프랑스 절대 왕정 시대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역사적 의미 연구」, 『한국인체 예술학학지』 제7권 제3호, 2001

이상우, 「철학/미학, 동양철학/동양미학 그 분류와 범주의 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미학회지 제 33집』, 2002

국내 서적

김상봉, 한국칸트학회 편, 『칸트의 미학』, 민음사, 1999

김 울, 『미학의 역사』 미학대계 제1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김은애 외, 『패션소재 기획과 정보』, 서울:교문사, 2000

다계우지 도우지, 안영길 외 역, 『미학예술사전』, 미진사:서울, 2003

다계우씨 도시오, 『미학예술학사전』, 미진사, 1989

백기수, 『미학서설』, 서울 대학교 출판부, 1994

성영신·박은아, 『아름다움의 권력』, 소울메이트, 2009

움베르토 에코, 『미의 역사』, 열린책들:서울, 2004

조용진, 『미인』, 해냄, 2007

전선정 외 3인 공저,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청구, 2001

D. Paquet, 지현역, 『화장술의 역사』, 서울:시공사, 1998

Geert Hofstede, 차재호·나은영(易),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1996

Richard Corson, 김광숙 외(譯), 『Fashion in hair-The first five thousand years』, 동서교류출판사, 2010

sharon romm, 『The changing face of beauty』, 군자출판사, 2002

M.S.까간, 진중권 옮김, 『미학강의1』, 새길, 1989

Wolfhart Henk,ann외 김진수(譯), 『미학사전』, 예경출판사, 1998

기타 인터넷 자료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551

<http://blog.naver.com/lemonade861?Redirect=Log&logNo=107002840>

<http://navercast.naver.com/philosophy/dailythink/2170>

<http://navercast.naver.com/philosophy/dailythink/3669>

http://webzine.hrdtv.com/past/detail_search_01.asp

http://blog.naver.com/yw_pyo?Redirect=Log&logNo=4001423878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2754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aid=0002212190>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0475546>,

<http://www.gettyimageskorea.com>

<http://blog.naver.com/arribaaroa78/140103664352>

<http://blog.naver.com/gkdmsdlect/20027615315>

<http://blog.naver.com/bourne90>

<http://blog.naver.com/lemonade861?Redirect=Log&logNo=107002840>

<http://www.tankus.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38&aid=0000311285>

<http://photo.naver.com/view/2010042610010143894>

<http://heren.join.com/article/article.asp?aid=2783&code=0702100>

<http://blog.naver.com/why1985?Redirect=Log&logNo=50074770397>

Vogue(korea),1998년 12월 호

ABSTRACT

Changes in the aesthetic value of wome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face design of a modern women's

Yang, Ji-Ni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is paper is explaining a changing of women's aesthetic value view point according to age, ethnics and individuals with aesthetic category, also analyzing differences by adopting old age's standards of aesthetical beauty to modern women's facial image. The women in the age of Smartwork changed to functional beauty with mass production after industrial revolution and aesthetic concept from functionalism philosophy and standardization according to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various facial design and trend by defining the aesthetic value view of women in the age of beauty and the importance of beauty, emotion and beauty of the era of a more prominent because of women's active in community activities in the future.